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생활과학석사 학위논문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에 따른  
유아의 정서이해가 친사회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2016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김민정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에 따른  
유아의 정서이해가  
친사회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이 강 이

이 논문을 생활과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김 민 정

김민정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6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 국문초록

이 연구는 3, 4,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의 돕기와 나누기의 친사회적 의사결정과 자신의 친사회적 의사결정에 대한 유아의 정서이해가 연령, 성별,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에 따라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알아보자 하였다. 그리고 친사회적 의사결정과 정서이해의 관계를 알아보고 연령, 성별 및 정서이해가 3, 4, 5세 유아의 친사회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상대유아의 정서조건 별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유아의 친사회적 의사결정의 양상은 어떠하며, 연령(3, 4, 5세)과 성별, 상대유아의 정서 조건(중립, 화남, 슬픔)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유아의 정서이해의 양상은 어떠하며, 연령(3, 4, 5세)과 성별, 상대유아의 정서 조건(중립, 화남, 슬픔)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1. 친사회적상황의 정서이해는 연령, 성별,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2. 욕구충족상황의 정서이해는 연령, 성별,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3]** 유아의 정서이해(친사회적상황 정서이해, 욕구충족상황 정서이해)와 친사회적 의사결정의 관계는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중립, 화남, 슬픔)별로 어떠한가?

**[연구문제4]** 유아의 연령, 성별, 정서이해(친사회적상황 정서이해, 욕구충족상황 정서이해)가 친사회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중립, 화남, 슬픔)별로 어떠한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서울, 경기, 충북 소재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4곳의 3, 4, 5세 유아 114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친사회적 딜레마 과제를 실시하여 상대유아의 정서조건별로 유아의 친사회적 의사결정과 정서이해(친사회적상황 정서이해, 욕구충족상황 정서이해)에 대한 응답을 얻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반복측정 변량분석, Pearson의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친사회적 의사결정은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3세보다 4세, 5세 유아가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친사회적 결정을 많이 보였다. 또한 유아의 친사회적 의사결정은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유아는 상대유아가 중립 또는 슬픔 정서를 보일 때보다 화남 정서를 보일 때, 친사회적 의사결정을 선택하는 경우가 유의하게 적었다. 성별에 따른 친사회적 의사결정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유아의 정서이해는 친사회적상황과 욕구충족상황 모두에서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친사회적상황의 정서이해의 경우, 3세와 5세 유아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3세와 5세 유아 모두 친사회적상황에서 긍정적 정서이해를 보이기는 했으나, 5세 유아가 3세 유아보다 긍정적인 정서이해를 유의하게 더 많이 보였다. 욕구충족상황의 정서이해의 경우, 3세와 4, 5세 유아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3세 유아는 욕구충족상황에서 긍정적 정서이해를 많이 보인 반면, 4세와 5세 유아는 부정적 정서이해를 많이 보였다. 성별 및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에 따른 유아의 정서이해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아의 친사회적 의사결정은 친사회적상황의 정서이해와 정적 상관관계, 욕구충족상황의 정서이해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친사회적상황의 정서이해와 욕구충족상황의 정서이해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상대유아가 보이는 중립, 화남, 슬픔의 모든 정서조건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넷째, 친사회적상황 정서이해, 욕구충족상황 정서이해, 연령 순서로 유아의 친사회적 의사결정에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 친사회적 상황에서 긍정적 정서이해를 많이 보일수록, 욕구충족상황에서 긍정적 정서이해를 적게 보일수록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유아는 친사회적 의사결정을 많이 보였다. 이러한 양상은 상대유아가 보이는 중립, 화남, 슬픔 정서조건에서 모두 동일했다.

이 연구는 돕기와 나누기의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유아의 친사회적 의사결정과 정서이해의 발달적 양상, 그리고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유아는 4세를 기점으로 또래와의 관계에서 친사회적 의사결정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친사회적 의사결정에 대한 유아의 정서이해는 4세경부터 욕구충족상황보다 친사회적상황에서의 만족감을 더 중요시하는 정서이해로 그 양상이 변화함을 규명하였으며, 유아의 친사회적 의사결정이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에 따라 일부 차이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유아의 친사회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인지적 요소로 정서이해의 역할을 규명하였다.

주요어 : 친사회적 의사결정, 친사회적 딜레마, 정서이해,  
상대유아의 정서조건

학번 : 2014-20349



# 목 차

## 국문초록

I. 문제제기 .....	1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7
1. 유아의 친사회적 의사결정 .....	7
1) 친사회적 의사결정의 개념 .....	7
2) 유아의 친사회적 의사결정 발달 .....	9
3) 상대유아의 정서조건과 유아의 친사회적 의사결정 .....	11
2. 유아의 정서이해 .....	13
1)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과 정서이해 .....	13
2) 유아의 정서이해 발달 .....	15
3) 상대유아의 정서조건과 유아의 정서이해 .....	18
3. 정서이해와 친사회적 의사결정의 관계 .....	20
III. 연구문제 및 용어의 정의 .....	22
1. 연구문제 .....	22
2. 용어의 정의 .....	23
1) 친사회적 의사결정 .....	23
2) 정서이해 .....	24
3) 상대유아의 정서조건 .....	24
IV. 연구방법 및 절차 .....	25
1. 연구대상 .....	25
2. 연구도구 .....	27

1) 친사회적 의사결정 측정도구 .....	27
2) 정서이해 측정도구 .....	29
3. 연구절차 .....	32
1) 예비조사 .....	32
2) 본 조사 .....	33
4. 자료 분석 .....	34
 V. 결과 및 해석 .....	 35
1. 유아의 연령, 성별 및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에 따른 친사회적 의사결정 .....	35
2. 유아의 연령, 성별 및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에 따른 정서이해 .....	40
1) 친사회적상황 정서이해 .....	40
2) 욕구충족상황 정서이해 .....	44
3.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에 따른 정서이해와 친사회적 의사결정 의 관계 .....	52
4.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에 따른 유아의 연령, 성별, 정서이해가 친사회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	55
 VI. 결론 및 논의 .....	 59
 참고문헌 .....	 66
부록 .....	77
Abstract .....	83

## 표 목 차

<표 IV-1> 연구대상의 구성 .....	26
<표 IV-2> 친사회적 딜레마 이야기 과제 .....	27
<표 IV-3> 상대유아의 정서조건별 이야기 과제 예시(2번) .....	28
<표 IV-4> 면접질문 및 평정 .....	31
<표 V-1> 연령, 성별,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에 따른 친사회적 의사결정 점수 .....	36
<표 V-2> 연령, 성별,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에 따른 친사회적 의사결정 반복측정변량분석 및 사후검정 .....	39
<표 V-3> 연령, 성별,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에 따른 친사회적상황 정서이해 .....	41
<표 V-4> 연령, 성별,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에 따른 친사회적상황 정서이해 반복측정변량분석 및 사후검정 .....	42
<표 V-5> 연령, 성별,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에 따른 욕구충족상황 정서이해 .....	45
<표 V-6> 연령, 성별,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에 따른 욕구충족상황 정서이해 반복측정변량분석 및 사후검정 .....	48
<표 V-7> 상황과 연령에 따른 정서이해 반복측정변량분석 ..	49
<표 V-8>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에 따른 정서이해와 친사회적 의사결정의 관계 .....	53
<표 V-9> 정서조건별 유아의 연령, 성별, 정서이해가 친사회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	56

## 그 립 목 차

<그림 IV-1> 정서카드 .....	30
<그림 V-1> 상황과 연령에 따른 정서이해 비교 .....	50

## 부 록 목 차

<부록 1> 친사회적 딜레마 이야기 과제 .....	77
<부록 2> 친사회적 딜레마 이야기 과제 그림 (여아용) .....	79
<부록 3> 정서이해 응답 이유의 사례 .....	81

## I. 문제제기

2015년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성품을 기르는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영유아 교육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영유아 교사들은 유아기 인성교육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행동을 강조하며(김은설, 최은영, 조아라, 2013), ‘3-5세 누리과정’에서도 배려, 존중, 협력, 나눔 등 친사회적 행동의 덕목들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어린 영유아들이 집단보육환경에 일찍부터 노출되어 또래와의 관계에 대해 관심이 증가하는 요즘, 친사회적 행동은 또래관계 형성에 중요한 사회적 기술로 간주된다. 또한 또래 상호작용에서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친사회적으로 행동하는 아이들은 이후 사회적으로 유능하며 또래지위가 높고 도덕적인 발달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Ellis & Zabatany, 2007; Eisenberg, Spinrad, & Morris, 2014; Murphy, & Eisenberg, 1997), 친사회적 행동은 유아의 사회 도덕성 발달과 관련하여 중요한 능력이다.

최근 여러 연구들(Gummerum, Hanoch, Keller, Parsons, & Hummel, 2010; Paulus, & Moore, 2014; Vaish, Carpenter, & Tomasello, 2010)은 유아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유아의 친사회적 의사결정 발달을 설명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친사회적 의사결정은 사회적 상황에서 가능한 여러 가지 행동 중 타인의 행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타인을 돌보고, 걱정하는 친사회적 행동을 하고자 선택하는 것이다(이옥경, 2002; Eisenberg, Fabes, & Spinrad, 2006). 친사회적 의사결정은 구조화된 상황을 통해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상황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아의 직접적인 응답을 통해 유아가 갖고 있는 친사회적 동기를 파악할 수 있다(Eisenberg, & Mussen, 1989).

유아기는 또래관계가 양적, 질적으로 변화하고 사회인지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이다. 3세가 되면 유아는 타인의 정서에 대해 이해와 공감을 할 수 있고(Denham, 1986; Hoffman, 2000), 이러한 사회인지 능력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더욱 정교화 된다. 유아의 사회인지 능력의 발달은 유

아가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친사회적으로 행동하게 한다. 또한 3세경부터 유아는 또래에게 관심을 갖고 또래와 함께하는 놀이를 시작한다(Howes, Rubin, Ross, & French, 1988). 유아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또래관계의 역동은 다양해지고 또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대처하는 능력 또한 향상되어 친사회적 행동과 같은 긍정적인 상호작용 기술을 습득해 나간다(김세리, 이강이, 2013; Howes et al., 1988). 이러한 유아기 특성에 근거하여 이 연구에서는 또래관계에서 3, 4, 5세 유아의 친사회적 의사결정이 어떠한 발달적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령과 더불어 성별 또한 친사회적 의사결정 발달에서 중요한 변수로 논의되고 있다. 친사회적 의사결정은 성인의 보고가 아닌 유아의 응답을 직접적으로 듣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차별적 사회화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Malti, Gummerum, Keller, & Buchmann,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사회적 의사결정의 성차에 대해 상반된 주장(이옥경, 2002; Gummerum et al., 2010; Weller, & Lagattuta, 2014)이 나타난다. 성인이 보고하는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중 ‘돕기’는 성차를 반영하지 않지만, ‘나누기’에서는 성차가 반영된다는 결과들(홍혜란, 하지영, 서소정, 2008; Iannotti, 1985)은 친사회적 의사결정에서 측정하는 친사회적 행동의 유형에 따라 성차가 다르게 발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유아기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돕기와 나누기(Iannotti, 1985)를 모두 포함하는 친사회적 의사결정 과제를 통해 유아의 친사회적 의사결정에 성차가 나타나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상황적 단서 또한 유아의 친사회적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수정된 사회정보처리 모델(Lemerise & Arsenio, 2000)에서는 사회적 상황에서 유아에게 제시되는 정서 단서가 유아가 사회적 상황을 해석하여 행동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즉,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은 유아에게 상대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지각할 수 있게 하고 공감을 증가시켜 돕기, 나누기와 같은 친사회적 행동을 이끌어낸다(Saarni, 1992; Zahn-Waxler, Radke-Yarrow, Wagner, & Chapman, 1992). 그동안 친사회적 의사결정을 살펴 본 연구들에서는 타인의 정서

조건을 고려하는 것이 간과되어 왔다(Terwogt, 2002). 그러나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이 친사회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단서임을 고려해볼 때 3, 4, 5세 유아의 친사회적 의사결정에서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이 중요한 상황적 단서가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타인의 정서조건이 유아의 친사회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Hepach, Vaish, & Tomasello, 2013; Terwogt, 2002; Vaish, Carpenter, & Tomasello, 2009; Weisberg, Leslie, 2012)은 정서조건별로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Hepach와 동료들(2013)에 따르면, 유아는 친사회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상황단서를 고려할 때 타인의 정서표현 유무보다는 타인의 특정한 정서표현이 그 상황에 적합한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고려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정서표현이 유아의 친사회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타당한 정서적 신호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상대유아의 정서표현에 따라 유아의 반응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상대유아가 정서표현이 없을 때보다, 슬픔과 화남 형태의 정서가 표현되는 맥락에서 유아는 친사회적 동기를 더 많이 느낄 수 있다(Carlson, Felleman, & Masters, 1983). 하지만 상대유아의 화남 정서는 유아에게 공감과 동정심을 이끌어내는 신호이기 보다는 공격적인 의도로 해석되어 오히려 공격적인 반응(Denham, 1986)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화남정서 표현이 때로는 유아의 친사회적 동기를 저하시키는 정서적 신호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을 중립, 화남, 슬픔 조건으로 구분하여 친사회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정보처리 과정에서 유아는 여러 가지 행동을 평가하여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한다(Crick, & Dodge, 1994; Nelson, & Crick, 1999). 사회도덕적 상황에서 행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정서에 대한 기대 또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식체계이다(Lemeris, & Arsenio, 2000). 그러나 지금까지 사회도덕적 상황에서의 정서이해는 주로 공격행동, 규칙 위반과 같은 금지된 행동들을 수반하는 상황과 관련된 반사회적 딜레마에 대해서만 연구가 이루어졌으며(김미

정, 이순형, 2009; Arsenio, & Kramer, 1992; Wiersman, & Laupa, 2000), 친사회적 행동을 포함하고 있는 친사회적 딜레마에서의 정서이해에 대한 관심은 적었다. 따라서 반사회적 딜레마 상황과 구분되는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유아의 정서이해 양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친사회적 딜레마에서 유아는 돕기, 나누기와 같은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상황과 친사회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상황을 경험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정서이해를 보인다. Krettenauer과 Johnston(2011)은 자신의 욕구를 희생하고 친사회적으로 행동하는 ‘친사회적상황’에 대해서는 긍정적 정서가 유발되는 반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친사회적 행동을 하지 못한 ‘욕구충족상황’에서는 죄책감, 미안함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유발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기존의 연구는 친사회적 딜레마와 관련된 도덕적 정서가 학령기가 되어야 나타난다고 주장하였으나(Pons, Harris, & de Rosnay, 2004; Arsenio, & Kramer, 1992), 유아기에도 친사회적인 규범에 대한 이해가 발달하면서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에 대한 친사회적 규범을 고려한 정서이해가 나타난다는 근거들이 제시된다(원정애, 송현주, 2009; Gummerum et al, 2010). 이를 근거로, 유아를 대상으로 친사회적 딜레마에서 서로 다른 정서적 결과를 유발하는 친사회적상황과 욕구충족상황의 정서이해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유아는 친사회적상황에서 대부분 긍정적인 정서이해를 보인다(Sy, Demeis, & Scheinfeld, 2003; Weller, & Lagattuta, 2013). 또한 욕구충족상황에서도 유아는 타인을 돕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긍정적 정서이해 양상을 보인다(Sy et al., 2003; Weller, & Lagattuta, 2013). 이처럼 선행연구는 유아가 친사회적상황이나 욕구충족상황에서 모두 긍정적 정서이해를 보인다고 주장하지만, 이들 두 상황은 서로 다른 발달적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아는 또래와의 친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긍정적 경험을 많이 함으로써 친사회적상황에서 긍정적 정서이해를 형성해 나간다(Von Salisch, 2001). 이에 따라 친사회적상황에서의 긍정적 정서이해의 정도는 증가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반면 유아는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조망수용능력이



발달하고 친사회적 행동의 규범과 기준을 내재화하면서 욕구충족상황에 친사회적 규범을 고려한 부정적인 정서이해를 보이는 양상으로 발달한다 (Gummerum et al., 2010; Krettenauer, Malti, & Sokol, 2008). 유아는 인지능력의 발달, 친사회적 규범의 인식, 친사회적 상호작용 경험의 증가 등으로 정서이해가 발달적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아의 정서이해의 발달적 변화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하였다. 특히 유아의 정서이해를 친사회적상황의 정서이해와 욕구충족상황의 정서이해로 구분하여 비교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유아의 정서이해를 두 가지 상황으로 구분하여 발달적 양상을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령에 따른 발달적 양상과 더불어 성별은 정서이해의 발달적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논의되고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Krettenauer, & Johnston, 2011; Sy et al., 2003; Malti, Gummerum et al., 2009)는 정서이해에 성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차별적 사회화에 따라 여아들의 도덕적 동기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주장이 여전히 제기된다(Nunner-Winkler, Meyer-Nikele, & Wohlrab, 2007). 따라서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의 정서이해에서 성차 또한 함께 확인해보고자 한다.

한편, 친사회적 의사결정이 발생하는 주변 상황의 단서들로 인해 친사회적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감, 만족감 등의 차이가 발생하고 상황 단서들이 친사회적 의사결정의 동기적 지표가 되는 정서이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이 제시된다(Sy et al., 2003; Weller, & Lagattuta, 2014). 수정된 사회정보처리 모델에서 제시하듯, 상대유아의 정서조건 또한 정서이해에 차이를 가져 올 수 있는 상황적 단서이다. 유아의 공격행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연구들은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이 가해자 정서이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반된 결과를 제시한다(송하나, 2012; 정현심, 2014). 정서이해는 축적된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인지적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Arsenio, 2014), 상대유아의 정서조건과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반된 논의가 존재하는 가운데, 공격성과는 다른 맥락의 사회도덕적 행동인 친사회적 행동을 포함하고 있는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는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이 정서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친사회적 의사결정과 관련된 동기적 요소인 정서이해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도덕적인 발달양상을 나타내지만, 연령에 상관없이 발달의 전 과정에서 정서이해는 개인차를 보여 사회도덕적 행동의 차이를 가져온다(Malti, Keller, & Buchmann, 2013; Arsenio, 2014). 그동안 정서이해와 도덕적 행동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들은 정서이해가 공격성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에 비해 친사회적 행동과는 상대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Malti & Krettenauer, 2013). 그렇지만 이는 정서이해를 규칙위반, 공격 행동과 같은 반사회적 딜레마 상황에 집중하여 살펴보았기 때문에 반사회적 행동과의 설명력이 더 높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부 연구에서 친사회적 딜레마 중 친사회적 행동에 실패한 ‘욕구충족상황’의 정서이해와 친사회적 의사결정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Gummerum et al., 2010; Malti, Gummerum et al., 2009). 하지만 ‘친사회적 행동에 실패’한 것과 ‘물건을 훔치는 것’이 친사회적 행동과 반사회적 행동이라는 서로 다른 사회도덕적 규범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두 행동을 욕구충족상황으로 통합하여 살펴보았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친사회적 행동을 했을 때의 정서이해가 도덕적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Malti et al., 2013) 친사회적상황의 정서이해와의 관련성은 살펴보지 않았다. 따라서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유아의 친사회적상황의 정서이해와 욕구충족상황의 정서이해가 유아의 친사회적 의사결정과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문제 제기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3, 4,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친사회적 의사결정과 정서이해의 발달적 양상을 상대유아의 정서조건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유아의 정서이해가 친사회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상대유아의 정서조건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아의 친사회적 의사결정에서 정서이해의 역할을 제시하고, 또래관계 속에서 유아가 친사회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보육현장의 교사들이 지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도출하기 위해 유아의 친사회적 의사결정과 정서이해 및 정서이해와 친사회적 의사결정의 관계에 대해 관련된 이론 및 선행연구를 다음과 같이 고찰하고자 한다.

### 1. 유아의 친사회적 의사결정

#### 1) 친사회적 의사결정의 개념

친사회적 의사결정은 사회적 상황에서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행동 중 타인을 위해 친사회적 행동을 하고자 선택하는 것이다(이옥경, 2002; Weller, & Lagattuta, 2013). 친사회적 의사결정은 구조화된 상황에서 유아가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행동 중 친사회적 행동을 선택하는지 유아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친사회적 의사결정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친사회적 행동은 이타주의와 다소 차이가 있다. 이타주의가 동정심과 같은 내재적 동기를 갖고 타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특성을 갖는다면, 친사회적 행동은 타인을 위한 긍정적 의도를 갖고 있지만, 타인으로부터 인정, 보상 추구, 동정심 등 다양한 이유로 이루어지는 돕기, 나누기, 위로하기, 협력하기 등의 행동을 포함한다(Eisenberg, & Mussen, 1989). 특히 유아기에는 친사회적 행동 유형 중 돕기, 나누기 행동을 많이 보인다(Iannotti, 1985). 이 때 돕기란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상황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반응하는 것으로, 다친 사람을 도와주는 긴급한 상황 뿐 아니라 무언가를 떨어뜨렸을 때 주워주는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돕기 반응까지 포함한다(Iannotti, 1985; Jackson & Tisak, 2001). 나누기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가치 있는 무언가를 그것을 갖고 있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동으로, 타인의 복지를 위해 행동한다는 점에서 돕기와 유사한 개념이다(Bar-Tal, Raviv, & Goldberg, 1982; Iannotti, 1985; Jackson & Tisak,

2001).

많은 연구들(송승희, 장경은, 2015; 홍혜란 외, 2008; Taylor, Eisenberg, Spinard, Eggum, & Sulik., 2013)에서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교사와 부모 등 성인의 평가를 주로 사용한다. 이는 오랜 시간 다양한 상황에서 아이를 관찰해 본 성인으로부터 응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방법으로 쓰이지만(Eisenberg, & Mussen, 1989), 유아의 직접적인 응답을 얻을 수 없고 특정한 상황 요인들을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친사회적 의사결정은 유아의 직접적인 응답을 얻을 수 있고 구조화된 상황을 통해 유아가 친사회적 행동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상황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Eisenberg, & Mussen, 1989). 최근 연구들(Gummerum et al., 2010; Paulus, & Moore, 2014; Vaish et al., 2010)은 유아가 친사회적 행동을 하고자 하는 심리적, 발달적, 상황적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해 구조화 된 상황에서 유아의 친사회적 의사결정을 살펴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친사회적 의사결정을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들은 독재자 실험과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을 제시하였다. 독재자 실험은 유아에게 스티커 10개를 제공한 후, 친구에게 몇 개의 스티커를 줄 것인지 결정하게 하는 방법이다(Gummerum et al., 2010). 이러한 방법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중 ‘나누기’에만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유아기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돕기까지 모두 포함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 제시 방법은 유아가 충분한 도덕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유아가 돕기, 나누기와 같은 친사회적 행동을 위해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거나 만족을 지연시키고자 하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Weller와 Lagattuta(2013)의 연구에서는 주인공이 롤러스케이트를 타러 가던 길에 처음 보는 또래가 진흙에 그림을 그린 종이를 쏟았을 때, 같이 종이를 줍는 친사회적 행동을 할 것인지 롤러스케이트를 타러 갈 것인지 결정하는 상황을 제시하였다. 이는 타인의 필요와 자신의 욕구가 충돌하는 딜레마 상황을 통해 유아가 친사회적 행동과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 때 유아는 롤러스케이트를 늦게 타

더라도 같이 종이를 줍는 친사회적 결정을 할지, 아니면 같이 종이를 줍지 않고 롤러스케이트를 꼭 타고 싶기 때문에 롤러스케이트를 타러 가는 친사회적이지 않는 결정을 할 것인지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하나의 선택을 할 수 있다.

유아는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실용적 결과에 관심을 가지며, 동시에 타인의 신체적, 물리적, 심리적 욕구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는 발달적 특성(Eisenberg, & Hand, 1979)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유아가 또래와의 관계에서 겪을 수 있는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을 살펴봄으로써, 유아의 친사회적 의사결정이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2) 유아의 친사회적 의사결정의 발달

유아의 친사회적 의사결정은 사회인지 능력의 발달과 함께 증가한다. 3세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자기중심적 공감에서 타인에 대한 공감으로 발달하고(Hoffman, 2000),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는 조망수용능력이 발달하는 시기이다(Denham, 1986). 이러한 발달을 전제로 3세는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반응이 급격하게 증가한다(Dunfield, & Kuhlmeier, 2013; Svetlova, Nichols, & Brownell, 2010; Zahn-Waxler et al., 1992). 또한 4세가 되면 틀린 믿음에 대한 이해가 출현(Capage, & Watson, 2001)하고 정서이해가 더욱 정교화(Pons et al., 2004) 되면서 유아는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행동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유아의 연령에 따라 친사회적 의사결정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최근 보육연령이 점차 낮아지면서 대부분의 유아들은 일찍부터 단체 생활을 경험하고 사회적 관계 특히, 또래와의 관계를 일찍부터 경험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유아들은 또래관계에서 친사회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상황에 빈번하게 노출되며(Dunn, Cutting, & Demetriou, 2000), 또래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욕구와 또래의 필요가 충돌하는 딜레마 상황에 놓이

는 경험도 증가한다. 3세가 되면 유아는 또래와 함께 놀이를 시작하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한다(Howes et al., 1988). 연령이 증가하면서 또래와의 친밀감이 증가하고 상호작용이 복잡해지며 또래관계에서 상호공동적인 문제해결 능력 또한 증가한다(김세리, 이강이, 2013; Howes et al., 1988). 따라서 사회인지적으로 큰 발달적 변화를 보이고, 또래관계가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시기인 3, 4,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친사회적 의사결정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연령과 더불어 성별 또한 친사회적 의사결정의 중요한 변수다. 교사, 부모 등 성인이 평가하는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은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 차별적 역할기대를 반영하기 때문에 성차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반면에 유아의 친사회적 의사결정은 유아가 갖고 있는 친사회적 의도를 직접적으로 반영한 결과이기 때문에 성차가 덜 반영 될 수 있다(Malti, Gummerum et al.,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사회적 의사결정에 성차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상반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선행연구들은 여아가 남아보다 친사회적 의사결정을 많이 보인다고 주장한다(Gummerum et al., 2010; Weller & Lagattuta, 2013, 2014; Malti, Gummerum et al., 2009). 반면, 친사회적 의사결정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옥경, 2002)이 있다. 이러한 상반된 주장은 친사회적 의사결정에서 측정하는 친사회적 행동 유형에서 기인한다. ‘돕기’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지만, ‘나누기’에서는 성차가 나타난다는 결과(홍혜란 외, 2008; Iannotti, 1985)들이 제시되고, 이는 친사회적 의사결정 과제 구성에 따라 성차가 다르게 발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친사회적 의사결정 과제 또한 스티커, 사탕 등의 자원을 나누는 의사결정을 살펴보고 이 때 여아는 남아보다 친사회적 의사결정을 많이 보인다(Gummerum et al., 2010).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주로 살펴보고 있는 나누기 과제 뿐 아니라 돕기와 나누기를 모두 포함하는 친사회적 의사결정 과제를 통해 유아의 친사회적 의사결정의 성차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3) 상대유아의 정서조건과 유아의 친사회적 의사결정

친사회적 의사결정은 사회정보처리 모델(Crick, & Dodge, 1994)을 근거로 설명할 수 있다. 사회정보처리 모델은 유아가 사회적 상황에서 제공되는 신호들을 해석, 평가하여 사회적으로 유능한 결정에 어떻게 도달하는가에 대해 설명을 제공한다. 그동안 사회정보처리 과정은 유아의 공격성을 설명하는 모델(최인숙, 이강이, 2010; Crick, & Dodge, 1994; Hubbard, Dodge, Cillessen, Coie, & Schwartz, 2001)로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친사회적 의사결정 또한 사회정보처리 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 친사회적 경향이 높은 아동은 사회적 단서를 우호적으로 해석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친사회적 반응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린 뒤 친사회적 의사결정을 한다(Nelson, & Crick, 1999). 즉, 사회정보처리 모델은 유아가 상대방의 사회적 신호를 해석하여 돕기, 나누기와 같은 친사회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의사결정을 내린 뒤 행동을 실행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Lemerise와 Arsenio(2000)은 기존의 사회정보처리모델이 인지와 함께 작동하는 정서적 과정을 충분히 포함하여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정서적 과정을 통합시킨 수정된 사회정보처리 모델을 제시하였다. 수정된 사회정보처리 모델은 단서를 부호화 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정서적 신호를 중요한 단서로 본다(Saarni, 1992). 사회적 행동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며, 상호작용 과정에서 타인의 정서 표현은 사회적 행동을 결정하는 정보처리 과정의 중요한 신호가 된다.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타인의 정서적 신호는 자신의 정서와 상호작용을 증가시켜 공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Lemerise, & Arsenio, 2000). 아동은 타인의 정서적 신호의 의도를 해석하고 이에 따라 적응적 혹은 부적응적 방향의 목표설정을 한 뒤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의사결정을 한다(Lemerise, Gregory, & Fredstrom, 2005). 따라서 타인의 정서적 신호는 사회정보처리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요인으로 친사회적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상대의 정서조건이 친사회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살펴본 연구결과들은 일관되지 않았다. 먼저, 상대유아의 정서표현과 친사회적 의사결정은 서로 관련이 없다는 결과들이 제시되었다. Vaish와 동료들(2009) 및 Weisberg와 Leslie (2012)는 영유아가 타인이 정서적 표현을 하지 않아도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에 대해 동정심을 느낄 수 있고 나아가 친사회적 행동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Hepach와 동료들(2013)의 연구에서는 유아가 상대방이 다치는 상황을 보았을 때, 정서적 표현이 나타나면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보이지만, 정서가 표현될지라도 상황에 적합하지 않게 과장된 정서표현을 한다면 친사회적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Terwogt(2002)은 아동이 또래를 돕기 위한 의사결정을 할 때 또래가 무서워할 때보다 슬퍼할 때 돕고자 하는 경향을 많이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 연구를 통해 크게 세 가지 쟁점에 주목할 수 있다. 먼저, 정서표현이 수반되는 상황인가 수반되지 않는 상황인가이다. 둘째로, 정서표현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는가이다. 셋째로, 표현되는 정서의 유형이 어떤 것인가이다. 이를 토대로 상대의 정서조건이 친사회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서표현의 수반 여부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서 표현 유형을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하며 정서표현 유형이 유아에게 타당한 정서적 신호로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상대유아의 정서표현 유형에 따라 유아의 반응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먼저, 슬픔과 화남의 형태로 표현되는 정서는 유아에게 친사회적 동기를 갖도록 한다(Carlson et al., 1983). 이러한 정서를 통해 상대유아가 자신의 불편함을 표현한다면, 상대유아의 정서표현이 나타나지 않을 때보다 유아는 상대유아의 필요를 인식하고 공감과 동정심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또래의 화남 정서표현은 유아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시작하기에 타당하지 않은 정서가 될 수 있다. 유아는 또래가 슬픔이나 고통을 나타낼 때는 관심, 공감, 등의 반응을 보이지만 또래의 화남 정서에는 같은 화남 정서로 반응하는 경향을 보인다(이지영, 이경옥, 2013; 정윤희,



김희진, 2002; Denham, 1986; Denham, Caverly, Schmidt, Blair, DeMulder, Caal, Hamada, & Mason, 2002). 즉, 상대유아의 화남 정서는 때로는 친사회적 동기를 유발하기보다 그 의도를 잘못 해석하여 공격적인 반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을 정서표현이 수반되지 않는 중립조건과 정서표현이 수반되지만 그 의도가 왜곡될 수 있는 화남조건, 정서표현이 수반되고 관심과 동정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슬픔조건으로 구분해서 친사회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2. 유아의 정서이해

### 1)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과 정서이해

사회도덕적 상황에서는 그 상황과 관련된 정서가 수반된다. 아동이 경험해 온 사회도덕적 상황에서의 정서는 사회적 행동을 결정하는 사회인지요소이다(Arsenio, 2014; Harris, 1985; Lemerise, & Arsenio, 2000). 유아는 상황과 정서의 중요한 관계를 또래, 성인, 다른 사회화 대상과의 사회적 경험을 통해 습득하게 된다(Harris, 1985). 이러한 ‘상황과 정서의 관계’(affect-event link)는 서로 다른 종류의 상황들이 서로 다른 정서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이며, 이는 사회도덕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Arsenio, & Lover, 1999; Turiel, 1983). 따라서 친사회적 의사결정을 하는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는 공격행동, 규칙위반 등의 금지된 사회도덕적 행동과 관련된 반사회적 딜레마 상황과 서로 다른 정서이해 양상을 보인다.

Krettenauer과 Johnston(2011)은 친사회적 딜레마에서 발생하는 두 가지 상황과 그 상황에서 유발되는 정서에 대해 이야기했다. 첫 번째 상황은 친사회적 행동을 하기로 결정하는 상황이다. 즉, 자신의 욕구를 참고 타인을 위해 돕기, 나누기 행동을 하는 ‘친사회적상황’으로 이때는 주로 자부심과 같은 긍정적 정서이해가 나타난다. 반면 두 번째 상황은 친

사회적 행동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상황이다. 즉,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 돕기, 나누기 행동을 하지 않는 ‘욕구충족상황’으로 이때는 주로 미안함, 죄책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이해가 나타난다. 친사회적 행동을 포함하는 친사회적 딜레마와 관련하여 두 가지 서로 다른 정서를 유발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만 유아기의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에 대한 정서이해 연구는 제한적이다. 주로 도덕적 위반, 규칙위반, 공격적 행동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반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김미정, 이순형, 2009; Arsenio, & Kramer, 1992; Wiersma, & Laupa, 2000).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은 실천의 도덕적 의무와 관련된 돕기, 나누기 등 친사회적 행동을 포함하고 있다면, 반사회적 딜레마 상황은 금지의 도덕적 의무와 관련된 타인을 해치지 않기, 규칙을 어기지 않기 등 반사회적 행동을 포함하고 있다. 두 딜레마 상황은 서로 다른 도덕적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맥락이기 때문에 두 딜레마 상황에 대한 정서이해를 교환적으로 해석하는 불명확하다(Arsenio, 2014; Krettenauer, & Johnston, 2011; Malti, & Krettenauer, 2013). 따라서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이 포함하는 친사회적상황과 욕구충족상황에서의 정서이해는 반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도덕규범을 준수한 상황과 위반한 상황에서의 정서이해와 비교했을 때 구분되는 맥락이기 때문에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을 독립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유아는 ‘친사회적상황’에서 친구를 돕거나 친구에게 물건을 나누어 주는 도덕적 행동을 했을 때 대부분 긍정적인 정서이해를 보인다(Sy et al., 2003). 반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친구를 때리지 않기, 물건을 훔치지 않는 것 또한 도덕적인 행동이다. Lagattuta (2005)는 유아가 반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도덕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면 부정적 정서이해를 보이지만, 도덕적 제한이 없을 때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상황보다 부정적 정서가 경감된다고 이야기했다. 이처럼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욕구가 억제되어 생기는 부정적 정서를 경감시켜 주기도 하고, 오히려 긍정적 정서를 유발하기도 한다(Malti

et al., 2013). 하지만 친사회적 딜레마와 반사회적 딜레마에서의 도덕적 행동은 구분되어야 한다. 이러한 영역 간 차이는 행동자 효과(actor effect)로 설명할 수 있다. 특정한 상황에 대한 정서는 자신이 행동하지 않은 것 보다 행동한 것에 대해 더 강한 정서적 결과를 가져온다 (Krettenauer, & Johnston, 2011). 반사회적 딜레마에서 도덕적 상황은 ‘행동을 참은 것’이지만, 친사회적 딜레마에서 도덕적 상황은 ‘행동을 함’으로써 발생한다. 따라서 도덕적 규범을 지키기 위해 행동을 억제하는 반사회적 딜레마보다, 도덕적 규범을 위해 행동을 실천 하는 친사회적 딜레마에서 유아 또한 도덕적 행동이 가져오는 긍정적 정서이해를 더 강하게 보일 것이다.

반면, ‘욕구충족상황’에서 유아의 정서이해는 반사회적 딜레마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유아기 정서이해의 특성인 ‘행복한 가해자’(happy victimizer)에 비추어 해석이 된다. 행복한 가해자 현상이란 대부분의 유아들이 도덕적 규범을 위반한 행동에 대해서는 ‘나쁜 행동’이라는 판단을 하지만, 도덕적 규범을 위반한 사람(가해자)이 얻은 이득에 집중하여 그 사람의 기분이 좋다고 이해하는 현상을 의미한다(Krettenauer, et al., 2008). 이러한 특성에 근거하여 유아는 ‘욕구충족상황’에서 친사회적 행동에 실패했을지라도 자신이 얻은 이득에 집중하여 자신의 기분이 좋을 것이라 이해한다고 바라본다(Weller, & Lagattuta, 2013). 그러나 반사회적 행동과 친사회적 행동에 실패한 상황을 같은 경험적 상황으로 보고 교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다(Malti, & Krettenauer, 2013; Arsenio, 2014). 유아기의 ‘욕구충족상황’ 또한 행복한 가해자 현상을 보이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 2) 유아의 정서이해 발달

유아기는 타인의 바람과 믿음에 근거하여 정서를 이해하는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이며(Pons et al., 2004), 이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타인의 필요를 고려할 수 있게 된다(홍혜란 외, 2008;

Eisenberg, & Hand, 1979). 또한 유아기에도 친사회적 행동 여부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했을 때는 물론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정서에 변화를 가져온다(원정애, 송현주, 2009). 이러한 유아기의 발달적 양상에 비추어보면, 유아기에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과 더불어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에 대한 정서이해도 발달적 양상을 보일 것이라 추측해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도덕적 상황에 대한 정서이해와 관련된 죄책감, 자부심 등의 도덕적 정서가 8세를 전후로 발달하기 때문에(Pons et al., 2004), 사회도덕적 상황에 대한 정서이해는 주로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차 정서인 도덕적 정서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과 상관없이 유아도 기분이 ‘좋다’, ‘나쁘다’와 같은 정서 상태 혹은 ‘기쁘다’, ‘슬프다’, ‘화가 난다’ 등의 일차 정서 차원에서 친사회적상황과 욕구충족상황의 정서적 결과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송하나, 2012; Pons et al., 2004). 따라서 유아기에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발생하는 친사회적상황과 욕구충족상황에서의 정서이해가 어떤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친사회적상황에 대하여 대부분의 유아 및 아동은 긍정적인 정서이해를 보인다. 그러나 긍정적 정서를 얼마나 느끼는지 그 정도에 대해서는 차이가 나타난다. Weller와 Lagattuta(2013)은 5-13세 유아 및 아동 모두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에 긍정적 정서를 느끼지만, 긍정적 정서의 정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커진다고 주장했다. 반면 Sy와 동료들(2003)은 4, 5세 유아 또한 친사회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긍정적인 정서이해를 보이지만 그 정도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1, 2세의 영아들도 성인 혹은 손 인형을 대상으로 돕기, 나누기와 같은 친사회적 행동을 하고난 뒤 기뻐하는 정서표현을 한다(Dunfield, & Kuhlmeier, 2013; Aknin et al., 2015)는 연구결과를 통해 친사회적 행동에 대해 영아기부터 긍정적 정서표현을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세경이 되면 유아는 또래와 친밀한 관계 맺기를 시작하며 사회적 관계를 확장시켜 나가고 또래관계에서 친사회적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3세가 되면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친사회적상황이 긍정적인 정서적 결과를 가져

오는 경험을 하면서 긍정적 정서이해를 보일 것이라 추측해볼 수 있다. 더불어 유아기 동안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양적, 질적으로 확장되며 친사회적 상호작용 또한 증가한다(Dunn et al., 2000). 또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경험들은 유아의 정서이해 발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Von Salisch, 2001), 친사회적상황에 대한 긍정적 정서이해의 양상은 점점 두드러질 것이라 예상되며 이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유아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친사회적 행동에 실패한 욕구충족상황에서 자신이 충족한 욕구에 집중하여 긍정적 정서이해 양상을 보인다(Sy et al., 2003). 그러나 연령이 증가하면서 조망수용능력과 같은 인지능력의 발달과 함께 욕구충족상황에 대한 정서이해는 친사회적상황을 고려하여 부정적으로 변화한다(Krettenauer et al, 2008). Gummerum과 동료들(2010)은 친사회적 행동에 실패한 상황에서 자신의 정서에 대해 5세가 3세보다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느낀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비추어볼 때 욕구충족상황에 대해 유아가 긍정적 정서이해만을 보이는 것은 아니며 부정적, 도덕적 정서이해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양상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달적 변화를 보일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더불어 유아의 정서이해는 친사회적상황의 정서이해와 욕구충족상황의 정서이해로 구분하여 비교해볼 수 있다. Sy와 동료들(2003)은 유아가 친사회적상황에서 욕구충족상황보다 더 긍정적인 정서이해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이는 유아가 자신이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받는 일시적인 만족감보다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이 주는 지속적인 만족감을 더 중요시함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Weller와 Lagattuta(2013)는 유아들의 경우에는 친사회적상황보다 욕구충족상황에서 더 긍정적인 정서이해를 보인다고 해서 선행연구들이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이 주는 정서적 만족감에 대한 유아의 이해가 친사회적상황과 욕구충족상황에 따라 어떤 발달적 경향을 보이는지 두 상황을 구체적으로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정서이해에 성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많은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다(Krettenauer, & Johnston, 2011; Sy et al., 2003). 그러나 성별에 따

른 차별적 사회화의 영향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도덕적 동기가 더 강하다는 주장은 여전히 제기 되고 있으며(Nunner-Winkler et al., 2007), 동성의 또래에게 친사회적 행동을 했을 때 여아는 남아보다 긍정적인 정서이해를 보인다(Weller, & Lagattuta, 2014)는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연령과 더불어 유아의 개인적 특성인 성별이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정서이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 3) 상대유아의 정서조건과 유아의 정서이해

수정된 사회정보처리 모델에서는 상황에 대한 정서이해를 사회정보처리 과정의 정서적 발달 기제로 제시하였다. 상황에 대한 정서이해는 유아에게 내적 동기로 내재화되어 있지만, 사회정보처리 과정의 단서 인식부터 행동을 결정하는 모든 과정과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작동한다(Denham, Way, Kalb, Warren-Khot, & Bassett, 2013; Gasser, Gutzwiller-Helfenfinger, Latzko, & Malti, 2013). 기존의 사회인지적 관점에서는 정서이해를 장기기억으로 저장되는 보다 확고한 사회인지적 요인으로 보며 단순히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체계로 보았지만, 사회정보처리 관점에서 정서이해는 더 역동적인 사회인지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Arsenio, 2014). 이와 같은 주장은 유아가 주변 상황의 단서들을 인식하고 해석하여 친사회적 의사결정을 하는 사회정보처리 과정에서 상황적 단서들이 정서이해와 상호작용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이때 상대유아의 정서조건 또한 친사회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단서로써 정서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수정된 사회정보처리 이론에서 강조하는 정서이해가 친사회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단서인 상대유아의 정서조건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에 따른 유아의 정서이해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공격성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송하나(2012)의 연구에서는 4, 5, 6세 유아를 대상으로 공격행동의 피해자인 상대유아가 슬픔 정서를 표현

할 때와 화남 정서를 표현할 때 가해자의 정서이해를 비교하였다. 이 때 가해자는 피해자가 화를 낼 때보다 슬퍼할 때 죄책감과 같은 도덕적 정서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피해자가 화남 정서를 보일 때는 유아는 피해자의 화남 정서에 대한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반응하여 되려 ‘화가 난다’와 같은 정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대유아의 정서표현에 따라 상황에 대한 정서이해도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정현심(2014)의 연구에서는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이 유아가 상대유아의 의도를 이해하는 과정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정서이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에 대한 정서이해는 사회인지적인 측면으로 축적된 지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유아의 정서조건과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은 공격성과는 다른 사회도덕적 상황인 친사회적 행동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도덕적 행동을 하는 것보다 비도덕적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져, 친사회적 의무에 대해서는 반사회적 의무보다 도덕적 책임감이 상대적으로 적게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Krettenauer, & Johnston, 2011). 따라서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유아는 행동의 책임감을 적게 느끼기 때문에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에 대해 덜 민감한 정서반응을 보일 수 있다.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는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을 고려한 연구가 제한적이지만, 상대유아의 정서조건과 같이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의 맥락에서 유아에게 제시되는 상황 단서들이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의 정서이해에 영향을 미친다는(Weller, & Lagattuta, 2013; Sy et al., 2003) 점을 고려하여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이 정서이해에 미치는 영향의 가능성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 3. 정서이해와 친사회적 의사결정의 관계

유아의 사회도덕적 상황에 대한 정서이해는 중요한 사회인지적 요소로 도덕적 상황에서 적합한 행동을 하도록 한다(Malti, Gummerum et al., 2009; Tangney, Stuewig, & Mashek, 2007). 정서이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도덕적인 양상을 보이지만, 청소년기가 되더라도 여전히 사회도덕적 상황에 대해 도덕적 정서이해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 연령에 상관없이 발달의 전 과정에서 지속적인 개인차를 보인다(Arsenio, 2014; Malti et al., 2013). 많은 연구들은 사회도덕적 행동 특히 반사회적,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상황에 대한 정서이해가 행동의 중요한 동기적 지표가 된다고 하였다(Gini et al., 2011; Hoffman, 2000; Malti, & Krettenauer, 2013).

친사회적 의사결정을 사회인지 관점에서 설명하는 연구들은 정서이해의 역할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고 있다. 먼저 정서이해는 친사회적 의사결정을 유발하는 보상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Martin, & Olson, 2015). 친사회적 행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행복감, 만족감 등의 긍정적 정서에 대한 이해는 친사회적 행동을 하고난 뒤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정서이해는 친사회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동기가 된다. 한편 정서이해는 유아가 도덕적 규범과 기준을 내재화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친사회적 의사결정의 동기가 된다(Tangney et al., 2007; Smetana, & Killen, 2008). 친사회적이지 않은 행동이 부정적 정서를 유발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친사회적 행동이라는 도덕적 규범, 규칙의 타당성을 수용하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서이해는 친사회적 의사결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정서이해와 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설명할 때, 정서이해는 주로 공격행동, 규칙 위반 등 반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논의되었다. 공격행동, 규칙 위반 등 도덕규범을 위반한 상황에서 행위자의 정서를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아이들일수록, 일상생활에서 반사회적 행동을 적게 하고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한다고 밝혀졌다(Malti, Gasser, & Buchmann,



2009; Malti, & Keller, 2009). 그러나 이 때, 정서이해와 반사회적 행동의 관계에 대해서는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지만, 친사회적 행동과의 연관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분석된다(Malti, & Krettenauer, 2013). 이는 정서이해를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의 맥락이 아닌 ‘반사회적 딜레마 상황’의 맥락에서 주로 측정해 왔기 때문으로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정서이해를 살펴보고 친사회적 의사결정과의 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정서이해와 친사회적 행동 및 의사결정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구들(Gummerum et al., 2010; Malti, Gummerum et al., 2009) 또한 제시되고 있다. 즉,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의 정서이해 중 친사회적 행동에 실패한 상황 즉 ‘욕구충족 상황’에서의 정서이해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Gummerum과 동료들(2010)의 연구에서는 3, 4,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반사회적 행동인 ‘훔치기’와 친사회적 행동을 실패한 ‘나누기 거절’ 이야기 과제에서의 행위자의 정서이해와 친사회적 의사결정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두 이야기 과제에서 주인공의 정서를 부정적으로 이해한 유아일수록 친사회적 의사결정 과제에서 또래에게 스티커를 더 많이 나누어주는 결정을 한다고 주장했다. 즉,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인 ‘나누기 거절’에서의 정서이해와 친사회적 의사결정의 관계가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반사회적 맥락과 친사회적 맥락을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았고, 친사회적 맥락 중 ‘욕구충족 상황’의 정서만 살펴보았다는 한계가 있다. 도덕적 행동을 한 뒤에 긍정적인 정서이해를 보이는 것 또한 도덕적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Malti et al., 2013), 친사회적 상황을 포함해서 정서이해와 친사회적 의사결정의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정서이해와 친사회적 의사결정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의 ‘친사회적 상황’과 ‘욕구충족 상황’의 정서이해를 모두 고려하여 친사회적 의사결정의 관계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 Ⅲ. 연구문제 및 용어의 정의

이상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관련 용어를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 1. 연구문제

이 연구는 유아의 친사회적 의사결정 및 정서이해가 연령 성별 및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유아의 정서이해와 친사회적 의사결정 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유아의 연령 성별 및 정서이해가 유아의 친사회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상대유아의 정서조건별로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유아의 친사회적 의사결정의 양상은 어떠하며, 연령(3, 4, 5세)과 성별, 상대유아의 정서 조건(중립, 화남, 슬픔)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유아의 정서이해의 양상은 어떠하며, 연령(3, 4, 5세)과 성별, 상대유아의 정서 조건(중립, 화남, 슬픔)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1. 친사회적상황의 정서이해는 연령, 성별,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2. 욕구충족상황의 정서이해는 연령, 성별,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3]** 유아의 정서이해(친사회적상황 정서이해, 욕구충족상황 정서이해)와 친사회적 의사결정의 관계는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중립, 화남, 슬픔)별로 어떠한가?

[연구문제4] 유아의 연령, 성별, 정서이해(친사회적상황 정서이해, 욕구충족상황 정서이해)가 친사회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중립, 화남, 슬픔)별로 어떠한가?

## 2. 용어 정의

### 1) 친사회적 의사결정

친사회적 의사결정이란 사회적 상황에서 가능한 여러 가지 행동 중 친사회적 행동을 하고자 선택하는 것이다(Weller, & Lagattuta, 2013). 이 연구에서 유아의 친사회적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상황은 자신의 욕구와 타인의 필요가 충돌하는 딜레마 상황을 의미하며, 이 때 유아가 선택하는 친사회적 행동은 유아기에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친사회적 행동 유형인 돕기와 나누기(Iannotti, 1985)에 한정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친사회적 의사결정이란 유아가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자신의 욕구를 지연시키고 또래의 필요를 고려하여 돕기 혹은 나누기 행동을 하고자 선택하는 것으로 조작적 정의하며, 돕기, 나누기 행동을 하는 친사회적 결정과 돕기, 나누기 행동을 거절하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친사회적이지 않은 결정으로 구분한다.

## 2) 정서이해

정서이해는 특정 상황에서 유발되는 정서에 대한 아동의 예측, 판단, 믿음 등을 의미한다(Gummerum et al., 2010; Weller, & Lagattuta, 2013; Wiersma, & Laupa, 2000). 이 연구에서 정서이해란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유아가 특정한 의사결정을 하고 난 후 느끼는 정서에 대한 이해를 의미하며, 친사회적상황의 정서이해와 욕구충족상황의 정서이해로 조작적 정의한다.

친사회적상황의 정서이해는 유아가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자신의 욕구를 포기했지만, 친구를 위해 돕기 또는 나누기 행동을 했을 때 느끼는 정서에 대한 이해를 의미한다.

반면, 욕구충족상황의 정서이해는 유아가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친구를 위해 돕기 또는 나누기 행동을 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동을 했을 때 느끼는 정서에 대한 이해를 의미한다.

## 3) 상대유아의 정서조건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이란 상대유아가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서 표현하는 정서로 조작적 정의한다.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상대유아가 보이는 정서 표현 형태에 따라 어떤 정서도 표현하지 않는 중립 조건, 얼굴을 찡그리며 화를 내는 화남 조건, 울면서 슬픔을 표현하는 슬픔 조건으로 구분한다.

## IV. 연구방법 및 절차

이 장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방법과 연구절차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문제에 적합한 연구대상의 선정과 연구도구의 구성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연구절차 및 수집된 자료에 적합한 분석 방법에 대해 제시하였다.

###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유아의 친사회적 의사결정 및 정서이해가 유아의 연령, 성별 및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유아의 친사회적 의사결정과 정서이해의 관계를 상대유아의 정서조건별로 밝히고, 친사회적 의사결정에 연령, 성별과 정서이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 경기도, 충북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4곳의 3, 4, 5세 유아 120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중 결석 등의 이유로 조사 과정 전체에 참여하지 못한 3명의 유아와 이야기에 집중하지 못해 연구를 끝까지 마치지 못한 유아 3명을 제외한 114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참여 유아의 구성은 <표 IV-1>과 같다. 전체 연구대상 유아는 총 114명이며, 그 중 3세 35명(남아 19명), 4세 39명(남아 18명), 5세 40명(남아 19명)으로 구성되었다. 3세의 평균 월령은 43.7개월(범위 : 39개월 ~ 48개월), 4세의 평균 월령은 55.1개월(범위 : 49개월 ~ 60개월), 5세의 평균 월령은 67.6개월(범위 : 61개월 ~ 72개월)으로 나타났다.

<표 IV-1> 연구 대상의 구성

연구대상 유아		연령			전 체
		3세	4세	5세	
성 별	남아	19명	18명	19명	56명
	여아	16명	21명	21명	58명
전 체		35명	39명	40명	114명

연구대상을 3, 4, 5세 유아로 선정한 이유는 4세를 전후로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이 급격히 증가(홍혜란 외, 2008)하기 때문이다. 3, 4, 5세 유아는 타인에 대한 정서이해가 증가하며 도덕적 정서와 관련된 특성이 나타나기 시작(송하나, 2012; Pons et al., 2004)하여 친사회적 의사결정 및 정서이해를 살펴보기에 적합하다. 또한 유아기는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는 시기로 유아는 이 시기에 또래와의 관계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변화하고 또래관계에서 도덕적 의사결정과 마주하는 빈도가 높아진다. 따라서 3, 4, 5세 유아는 또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상황에서의 친사회적 의사결정을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연령이다. 이러한 이유로 3, 4, 5세 유아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2. 연구도구

### 1) 친사회적 의사결정 측정도구

유아의 친사회적 의사결정을 살펴보기 위해 친사회적 딜레마 이야기 과제를 실시하였다.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은 타인의 필요와 자신의 욕구가 충돌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제시하는 이야기 과제로 선행연구(Sy et al., 2003; Weller, & Lagattuta, 2013)를 수정 보완하여 네 가지 딜레마 상황을 구성하였다. 4가지 딜레마 상황은 유아기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돕기와 나누기 행동이 요구되는 과제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IV-2>과 같다.

<표 IV-2> 친사회적 딜레마 이야기 과제

과제 번호	내용
1	나는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러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반 친구가 그림을 그린 종이들을 들고 가다 바람에 종이가 날아가는 것을 보았어요.
2	나는 예쁜 색칠 책이 생겨서 색칠을 하러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반 친구가 장난감 박스를 옮기다가 박스에 있는 장난감들을 떨어뜨리는 것을 보았어요.
3	나는 놀이 시간에 두 개의 자동차를 가지고 자동차 경주를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반 친구가 자신은 가지고 놀 자동차가 없다고 말 하는 것을 보았어요.
4	우리 반 친구들은 사탕 두 개를 선물로 받았어요. 나는 나중에 맛있게 먹으려고 사탕을 서랍에 넣어 두었어요. 그런데 같은 반 친구가 사탕을 먹으려다 땅에 떨어뜨려 먹을 수 없게 된 걸 보았어요.

딜레마 상황은 유아가 실제 생활하는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험 가능한 사건으로 구성되었으며, 아동학 교수 1인과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 2인, 어린이집 교사 1인을 통해 구성된 상황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제시된 딜레마 상황은 선행연구(이옥경, 2002; Dunn et al., 2000; Faver, & Branstetter, 1994; Paciello, Fida, Cerniglia, Tramontano, & Cole, 2013; Sierksma, Thijs, Verkuyten, & Komter, 2014; Sierksma, Thijs, & Verkuyten, 2015)에서 친사회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상황 변수들인 친밀감, 도움의 필요도, 비용의 정도를 일관되게 설정하여 통제하였다. 상대유아를 ‘같은 반 동성의 친구’로 설정하여 친밀감을 통제 하였다. 도움의 필요도는 ‘돕기’의 경우 물건을 주워주어야 하는 상황, ‘나누기’의 경우 내가 갖고 있는 두 개의 물건 중 한 개를 친구에게 줘야 하는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대유아의 필요도를 일치시켰다. 또한 돕기, 나누기 행동을 함으로써 생기는 나의 비용으로 돕기 에 피소드에서는 ‘놀이 욕구 지연시키기’ 나누기 에 피소드에서는 ‘소유물의 감소’로 비용을 통제하였다.

각 딜레마 상황에서 상대유아가 보이는 정서조건을 <표 IV-3>과 같이 중립, 화남, 슬픔 조건별로 이야기를 구성하여 총 12가지 딜레마 상황을 제시하였다.

<표 IV-3> 상대유아의 정서조건별 이야기 과제 예시(2번)

정서조건	이야기
중립	나는 예쁜 색칠 책이 생겨서 색칠을 하러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장난감 박스를 옮기다가 박스를 떨어뜨리는 것을 보았어요.
화남	나는 예쁜 색칠 책이 생겨서 색칠을 하러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장난감 박스를 옮기다가 박스를 떨어뜨려 <b>얼굴을 찡그리며 화를 내고 있는 것</b> 을 보았어요.
슬픔	나는 예쁜 색칠 책이 생겨서 색칠을 하러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장난감 박스를 옮기다가 박스를 떨어뜨려 <b>울면서 슬퍼하고 있는 것</b> 을 보았어요.



모든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에 따른 얼굴 표정 외에는 주인공과 상대유아의 얼굴을 지워놓아 유아가 그림카드를 보고 정서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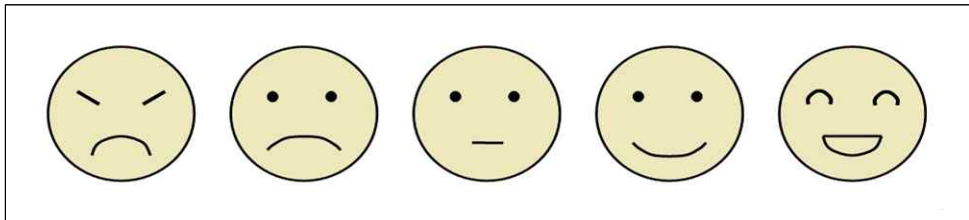
이야기 과제는 그림카드를 사용하여 일대일 면접법으로 실시하였다. 각 놀이 상황은 2장의 그림카드로 구성되며,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아이들의 의사결정을 나타내는 카드 2장을 준비하여 친사회적 결정과 친사회적이지 않은 결정을 고를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따라서 친사회적 의사결정 과제에 사용되는 그림카드는 총 48장이다. 유아에게 제시되는 그림은 14\*11cm 크기의 흑백 그림을 사용하였다.

친사회적 딜레마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야기에 제시되는 욕구충족 대상이 아이들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하였고(00는 사탕을 좋아하니?), 아이들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대상물이라면 아이들이 선호하는 비슷한 대체물을 제시하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친사회적 딜레마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유아의 의사결정 응답을 얻기 위해 유아에게 질문을 하였다(만약 00가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니?). 그리고 유아에게 친사회적 결정과 친사회적이지 않은 결정의 선택카드를 제시하였다. 이 때 친사회적 의사결정을 하면 1점으로, 그렇지 않으면 0점으로 평정하였다. 전체 이야기 과제에서 유아는 총 0~12점의 점수 범위를 가지며,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중립, 화남, 슬픔)별로 0~4점의 점수범위를 가진다.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가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친사회적인 결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 정서이해 측정도구

유아의 정서이해는 친사회적상황의 정서이해와 욕구충족상황의 정서이해를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먼저, 유아의 정서이해 응답은 Weller와 Lagattuta(2013) 연구의 응답 절차를 근거하여 이루어졌다(<표 IV-4>참고). 먼저, 유아가 친사회적 의사결정을 한 상황에서의 정서이해에 대해 질문을 하고, 그 다음 반대되는 상황을 제시하고 반대 상황에서의 정

정서이해를 질문했다. 이를 통해 친사회적상황과 욕구충족상황의 정서이해 응답을 12개의 친사회적 딜레마 에피소드에서 얻었다. 정서이해 질문은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을까, 그냥 괜찮은 정도일까, 나쁠까?’라고 물어본 뒤 ‘좋다’, ‘나쁘다’라고 응답한 유아에게 정서의 정도를 추가하여 ‘조금 좋을까(나쁠까), 많이 좋을까(나쁠까)?’라고 물어보았다. 정서이해 질문은 기분이 매우 나쁨(1점), 조금 나쁨(2점), 보통(3점), 조금 좋음(4점), 매우 좋음(5점)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된 <그림 IV-1>과 함께 제시되었다.



<그림 IV-1> 정서카드

또한 유아의 정서이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Keller, Lourenco, Malti, & Saalbach, 2003; Malti, Gummerum, & Buchmann, 2007; Malti, Gummerum et al., 2009)은 정서이해 보고의 대상이 정서이해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요인이라 이야기한다. 대상을 1인칭 ‘자신’ 혹은 3인칭 ‘타인’으로 설정하는가에 따라 정서이해 양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아기는 조망수용능력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을 누구로 설정하는가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Malti et al., 2007)고 이야기 하지만, 사회도덕적상황과 관련된 정서이해에서 타인보다 자신을 대상으로 했을 때 유아 및 아동은 도덕적인 정서이해를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Keller et al., 2003), 신경생리학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정서이해를 살펴볼 때는 정서적, 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편도체가 활성화 되지만 타인의 정서이해를 살펴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연구결과에 기반하여(Berthoz, Grezes, Armony,

Passingham, & Dolan, 2006) 정서이해를 살펴볼 때 대상을 ‘자신’으로 정하여 살펴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유아가 ‘자신’의 정서이해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개별유아의 친사회적상황과 욕구충족상황의 정서이해 점수는 평균값을 사용해서 최소 1점에서 최대 5점을 가진다.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가 친사회적상황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느낄 것이라 이해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욕구충족상황에 대한 정서이해 또한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가 욕구충족상황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느낄 것이라 이해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IV-4> 면접질문 및 평정

구분	질문내용	응답 및 평정
친사회적 의사결정	만약 00가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니? (선택카드제시)	친사회적 결정(1점), 친사회적이지 않은 결정(0점)
정 서 이 해	유아의 의사결정과 일치하는 상황에서의 정서이해 (정서카드제시) 00는 그림을 그리지 못하지만, 친구와 같이 정리를 해주어서 <b>기분이 좋을까, 그냥 괜찮은 정도일까, 나쁠까?</b> (좋다, 나쁘다 대답 후) <b>조금 좋을까(나쁠까), 많이 좋을까(나쁠까)?</b>	기분이 매우 나쁨(1점) 조금 나쁨(2점) 보통 (3점) 조금 좋음(4점) 매우 좋음(5점)
	유아의 의사결정과 반대되는 상황에서의 정서이해 (정서카드제시) 00는 그림을 그리지 못하지만, 친구와 같이 정리를 해주어서 <b>기분이 좋을까, 그냥 괜찮은 정도일까, 나쁠까?</b> (좋다, 나쁘다 대답 후) <b>조금 좋을까(나쁠까), 많이 좋을까(나쁠까)?</b>	기분이 매우 나쁨(1점) 조금 나쁨(2점) 보통 (3점) 조금 좋음(4점) 매우 좋음(5점)

### 3. 연구절차

#### 1) 예비조사

본조사에 앞서, 친사회적 딜레마 이야기와 면접질문의 적합성 및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서울대학교생명윤리심의위원회(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SNUIRB No. 1601/002-008)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진행되었다. 2016년 1월 20일부터 1월 22일까지 서울시의 한 어린이집의 조용한 공간에서 3, 4, 5세 유아 각 4명 씩 총 12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친사회적 딜레마 과제에서 그네, 색칠 책, 장난감, 사탕 등의 물건에 대해 ‘전 사탕을 좋아하지 않아요’ 등 아이들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친사회적 딜레마 이야기를 들려주기 전 대상 물건이 아이들이 흥미를 갖는 대상인지 확인하는 질문을 하였다. 만약 대상 물건이 아이들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비슷한 대체물로 바꾸어 친사회적 딜레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예를 들어, 사탕을 싫어하는 아이에게는 초콜릿, 쿠키, 비타민 등의 대체물의 선호도를 물어본 뒤 선호하는 대상으로 이야기를 변경하여 들려주었다.

정서이해에 대해 질문할 때 ‘기분이 많이 좋을까, 약간 좋을까, 그냥 괜찮은 정도일까, 조금 나쁠까, 많이 나쁠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질문의 길이가 너무 길고 ‘조금’과 ‘많이’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좋을까, 그냥 괜찮은 정도일까, 나쁠까’ 세 가지 선택지를 먼저 물어본 뒤에 ‘좋다’ ‘나쁘다’라고 응답하였을 때, 정서의 정도에 대해 ‘조금 좋을까(나쁠까)? 많이 좋을까(나쁠까)?’ 라고 질문하여 정서이해를 측정하였다.

예비조사에서 12가지 친사회적 딜레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대답하는데 한 아이 당 약 3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후반으로 갈수록 유아의 집중도가 떨어져 면접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보였기 때문에, 본조사에

서는 2회에 나누어 한 회기에 6가지 에피소드를 들려주고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였다.

## 2) 본 조사

본 조사는 2016년 3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서울, 경기, 충북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유아는 실내의 조용한 공간에서 연구자와 일대일 면접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였다.

유아는 총 12가지의 이야기 과제를 듣고 관련된 질문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유아의 과제 수행력을 높이고 피로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한 유아 당 2회에 걸쳐 과제를 시행하였으며, 1회 면접 당 6가지 이야기 과제를 실시하였다. 이야기 과제는 순서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과제의 제시 순서를 무선으로 하였으며 이 때, 같은 이야기가 연달아 제시되지 않고 서로 다른 이야기가 제시되도록 하였다. 1회 면접 시간은 약 15분 정도로, 전체 면접 시간은 총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자는 유아에게 앞으로 제시될 과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였다. 그 다음 이야기 과제를 들려주기 전 유아에게 정서이해에 사용되는 그림 카드를 보여주고 기분이 좋을 때와 안 좋을 때의 정서를 정확하게 응답하는지 확인하였다. 유아가 정확하게 정서 표정을 이해한 뒤에 과제를 시행하였다. 임의의 순서로 친사회적 딜레마 과제의 그림 카드를 보여주면서 그림 속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이야기를 들은 후 유아의 친사회적 의사결정에 대한 질문을 하였으며, 이 때 친사회적 의사결정의 선택지 제시 순서는 임의로 바꾸어서 제시하였다. 그 다음 유아의 의사결정과 일치하는 상황에 대한 정서이해에 대해 질문하고 왜 그런 기분을 느꼈는지 이유를 물었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의사결정과 반대되는 상황에서의 정서이해 및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다. 친사회적 의사결정 및 정서이해에 대한 응답은 결과표에 바로 기록하였으며, 이유는 녹음한 후 전사하여 기록하였다.

##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반복측정 변량분석, Pearson의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정서조건에서 친사회적 의사결정 및 정서이해의 전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친사회적 의사결정 및 정서이해의 연령, 성별,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서이해와 의사결정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령, 성별, 정서이해가 친사회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V. 결과 및 해석

이 장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 방법으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연구문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면서 관련 선행연구와의 일관성 여부와 연구자의 해석을 제시한다.

### 1. 유아의 연령, 성별 및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에 따른 친사회적 의사결정 (연구문제1)

유아의 연령, 성별 및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에 따른 친사회적 의사결정의 양상을 살펴본 결과는 <표 V-1>과 같다. 각각의 정서조건에서 친사회적 의사결정의 점수범위는 0 ~ 4점이고, 전체 친사회적 의사결정의 점수범위는 0 ~ 12점이다.

먼저 상대유아의 정서조건별로 친사회적 의사결정을 살펴보았다. 중립조건에서 친사회적 의사결정이 3.01점(SD=1.2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슬픔조건에서 3.00점(SD=1.24)으로 나타났으며, 화남조건에서 2.74점(SD=1.31)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수는 4가지 친사회적 딜레마 과제에서 중립, 슬픔 조건은 평균 3가지 과제에서 친사회적 의사결정을 보였고 화남조건에서는 평균 3가지 이하의 과제에서 친사회적 의사결정을 보였다는 의미이다. 즉, 유아는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상대유아가 별다른 정서표현을 하지 않거나 슬퍼하는 경우보다 화를 내는 경우, 그 아이를 돕거나 나누기 행동을 하려는 의도를 상대적으로 적게 보였다.

다음으로 연령에 따른 친사회적 의사결정의 평균점수를 각각의 정서조건에서 살펴보았다. 모든 조건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친사회적 의사결정의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중립 조건에서는 3세가 2.23점(SD=1.47), 4세가 3.01점(SD=1.22), 5세가 3.63점(SD=0.74), 화남 조건에서는 3세가 1.94점(SD=1.28), 4세가 2.80점(SD=1.36), 5세가 3.39점(SD=0.87),

슬픔 조건에서는 3세가 2.26점(SD=1.20), 4세가 3.08점(SD=1.24), 5세가 3.58점(SD=0.93)으로 나타나서, 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친사회적 의사결정의 점수가 높았다. 4가지 친사회적 딜레마 과제 중 3세는 평균 2가지의 과제에서, 4세는 평균 3가지의 과제에서, 그리고 5세는 평균 3가지 이상의 과제에서 친사회적 의사결정을 보였으며, 이는 상대유아의 모든 정서조건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V-1> 연령, 성별,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에 따른 친사회적 의사결정 점수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	연령	성별		전체 M(SD)
		남아 M(SD)	여아 M(SD)	
중립	3세	2.26(1.52)	2.19(1.42)	2.23(1.47)
	4세	2.89(1.45)	3.24(1.00)	3.01(1.22)
	5세	3.53(0.84)	3.71(0.64)	3.63(0.74)
	전체	2.89(1.38)	3.12(1.19)	3.01(1.29)
화남	3세	1.74(1.37)	2.19(1.17)	1.94(1.28)
	4세	2.72(1.53)	2.86(1.24)	2.80(1.36)
	5세	3.21(0.79)	3.52(0.93)	3.38(0.87)
	전체	2.55(1.39)	2.91(1.22)	2.74(1.31)
슬픔	3세	2.42(1.26)	2.06(1.12)	2.26(1.20)
	4세	2.72(1.45)	3.38(0.97)	3.08(1.24)
	5세	3.47(1.02)	3.67(0.86)	3.58(0.93)
	전체	2.88(1.31)	3.12(1.17)	3.00(1.24)
전체	3세	6.42(3.73)	6.44(3.29)	6.43(3.49)
	4세	8.33(4.03)	9.48(2.93)	8.95(3.48)
	5세	10.21(2.32)	10.91((2.28)	10.58(2.30)
	전체	8.32(3.72)	9.16(3.30)	8.75(3.52)

마지막으로 친사회적 의사결정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각각의 정서조건별로 살펴보면, 중립조건에서 남아가 2.89점(SD=1.38), 여아가 3.12점



(SD=1.19), 화남조건에서 남아가 2.55점(SD=1.39), 여아가 2.91점(SD=1.22), 슬픔조건에서 남아가 2.88점(SD=1.31), 여아가 3.12점(SD=1.17)점이었다. 여아가 남아보다 친사회적 의사결정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상대유아의 모든 정서조건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유아의 연령, 성별 및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에 따른 친사회적 의사결정의 차이를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 반복측정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은 세 번의 반복측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형성가정을 확인하기 위해 Mauchly의 단위행렬 검정을 실시한 결과 구형성가정을 충족하지 못해( $p<.05$ ) 가장 보수적인 통계값인 하한값을 기준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 V-2>와 같다.

먼저, 유아의 친사회적 의사결정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16.207$ ,  $p<.001$ ). 사후검정을 위한 Scheffé 검정 결과 3세보다 4, 5세가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친사회적인 결정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또래관계에서의 친사회적 행동은 3세 이후 발현되기 시작하며, 4세를 전후로 급격하게 발달한다(홍혜란, 하지영, 서소정, 2008)는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교사 혹은 부모가 평가한 친사회적 행동뿐 아니라 유아의 직접 선택하는 친사회적 의사결정도 연령에 따라 증가함을 확인하는 결과이다. 유아는 사회인지적 능력이 발달하고(Denham 1986),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증가하면서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긍정적인 상호작용 기술을 배워나가기 때문에 연령이 높아질수록 친사회적 의사결정이 증가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유아의 친사회적 의사결정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여아가 남아보다 친사회적 의사결정을 많이 보인다는 선행연구(Gummerum et al., 2010; Weller, & Lagattuta, 2014; Malti, Gummerum et al., 2009)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하지만, <표 V-1>에 제시된 양상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모든 조건에서 여아의 친사회적 의사결정 점수가 높게 나타나서,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성차의 경향성이 일부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아의 친사회적

의사결정은 성인이 보고하는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비교했을 때 성별에 따른 차별적 역할기대가 적게 반영되며(Malti Gummerum et al., 2009), 특히 어린 유아에게서는 성별에 따른 차별적 사회화가 두드러지게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이옥경, 2002). 더불어 이 연구에서 사용된 친사회적 의사결정 과제는 성차가 잘 보고되지 않는 친사회적 행동 유형인 돕기 과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친사회적 의사결정은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6.401, p<.05$ ). Bonferroni의 사후검정 결과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이 화남일 때, 중립, 슬픔일 때보다 친사회적 결정이 적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공격성과 관련된 사회정보처리 과정에서 상대유아의 화남 정서는 공격적인 의도로 인식되어 적대적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선행연구(정현심, 2014; Lemerise et al., 2005)에 근거하여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이 중립, 슬픔일 때 친사회적 의사결정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상대유아의 정서가 수반되는가의 문제보다는 상황에 적합한 정서 표현이라고 유아가 인식하는가가 친사회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조건이라는 선행연구(Hepach et al., 2013)의 주장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표 V-2> 연령, 성별,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에 따른 친사회적 의사결정  
반복측정변량분석 및 사후검정

변동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사후검정 (Scheffé) (Bonferroni)
피 험 자 간	연령	106.122	2	53.061	16.207***	a < b, c
	성별	3.595	1	3.595	1.098	
	연령×성별	1.952	2	0.975	0.298	
	오차	353.592	108	3.274		
상대유아의 정서조건		4.942	1.000	4.942	6.401*	d, f > e
피 험 자 내	연령×상대유아의 정서조건	0.072	2.000	0.036	0.046	
	성별×상대유아의 정서조건	0.373	1.000	0.373	0.484	
내	연령×성별 ×상대유아의 정서조건	4.089	2.000	2.044	2.648	
	오차	83.376	216	0.386		

\*\*\* $p<.001$ , \* $p<.05$

a=3세, b=4세, c=5세

d= 중립조건 e= 화남조건 f=슬픔조건

## 2. 유아의 연령, 성별 및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에 따른 정서이해(연구문제 2)

### 1) 친사회적상황 정서이해(연구문제 2-1)

연령, 성별 및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에 따른 친사회적상황 정서이해의 양상을 살펴본 결과는 <표 V-3>과 같다.

먼저 상대유아의 정서조건별로 친사회적상황 정서이해를 살펴보았다. 슬픔 조건에서 4.10점( $SD=1.13$ )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립 조건에서 4.04점( $SD=1.12$ ), 화남 조건에서 3.97점( $SD=1.13$ )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1점부터 5점까지의 정서이해 척도 중 슬픔, 중립 조건에서는 기분이 ‘조금 좋을 것 같다’에 해당하는 4점보다 조금 높은 점수, 화남 조건에서는 4점보다 조금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즉 유아는 중립, 화남, 슬픔의 상대유아 정서조건에서 모두 상대유아를 돕거나 나누기 행동을 했을 때 긍정적 정서를 느낄 것이라 이해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음으로 유아의 연령에 따른 친사회적상황 정서이해 양상을 각각의 정서조건에서 살펴보았다. 중립조건에서 3세 3.70점( $SD=1.36$ ), 4세 4.07점( $SD=1.11$ ), 5세 4.31점( $SD=0.80$ )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라 정서이해 점수가 더 높아졌다. 화남조건에서 3세( $M=3.51$ 점,  $SD=1.25$ ), 4세( $M=4.08$ 점,  $SD=1.18$ ), 5세( $M=4.26$ 점,  $SD=0.81$ )로 갈수록 정서이해 점수가 더 높았으며, 슬픔조건도 마찬가지로 3세( $M=3.83$ 점,  $SD=1.23$ ), 4세( $M=4.07$ 점,  $SD=1.29$ ), 5세( $M=4.37$ 점,  $SD=0.79$ )로 갈수록 정서이해 점수가 더 높았다. 모든 조건에서 3세는 3점 ‘그냥 괜찮다’와 4점 ‘조금 좋을 것 같다’ 사이에 해당하는 점수를 나타냈으며, 4세는 4점 ‘조금 좋을 것 같다’에 해당하는 점수를, 5세는 4점 ‘조금 좋을 것 같다’와 5점 ‘많이 좋을 것 같다’ 사이에 해당하는 점수를 보였다. 즉, 모든 연령에서 유아는 친사회적상황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정서를 느낄 것이라 이해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친사회적상황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느낄 것이라 이해하는 양상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성별에 따른 친사회적상황 정서이해 양상을 각각의 정서조건별로 살펴보았다. 모든 조건에서 남아와 여아의 정서이해 점수가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중립 조건에서 남아 3.98점(SD=1.21), 여아 4.10점(SD=1.03), 화남 조건에서 남아 3.95점(SD=1.20), 여아 3.99점(SD=1.06), 슬픔 조건에서 남아 4.10점(SD=1.17), 여아 4.10점(SD=1.09)이다. 남아와 여아 모두 4점 ‘조금 좋을 것 같다’ 전후의 점수를 나타냈다.

<표 V-3> 연령, 성별,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에 따른 친사회적상황 정서이해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	연령	성 별		전 체 M(SD)
		남아 M(SD)	여아 M(SD)	
중립	3세	3.78(1.46)	3.61(1.28)	3.70(1.36)
	4세	3.75(1.30)	4.35(0.86)	4.07(1.11)
	5세	4.40(0.71)	4.23(0.88)	4.31(0.80)
	전 체	3.98(1.21)	4.10(1.03)	4.04(1.12)
화남	3세	3.57(1.29)	3.44(1.24)	3.51(1.25)
	4세	3.85(1.44)	4.29(0.90)	4.08(1.18)
	5세	4.42(0.61)	4.12(0.94)	4.26(0.81)
	전 체	3.95(1.20)	3.99(1.06)	3.97(1.13)
슬픔	3세	4.09(1.18)	3.52(1.24)	3.83(1.23)
	4세	3.72(1.45)	4.37(1.07)	4.07(1.29)
	5세	4.46(0.72)	4.29(0.85)	4.37(0.79)
	전 체	4.10(1.17)	4.10(1.09)	4.10(1.13)
전 체	3세	3.81(1.23)	3.52(1.88)	3.68(1.20)
	4세	3.77(1.35)	4.33(0.88)	4.08(1.14)
	5세	4.43(0.56)	4.21(0.85)	4.31(0.72)
	전 체	4.01(1.12)	4.07(1.01)	4.04(1.06)

유아의 연령, 성별 및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에 따른 친사회적상황 정서이해의 차이를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의 구형성 가정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Mauchly의 단위행렬 검정을 실시한 결과 구형성 가정이 충족 되었다( $p > .05$ ). 그 결과는 <표 V-4>와 같다.

<표 V-4> 연령, 성별,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에 따른 친사회적상황 정서이해 반복측정변량분석 및 사후검정

변동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사후검정 (Scheffé)
피 험 자 간	연령	23.892	2	11.891	3.726*	a < c
	성별	0.028	1	0.028	0.009	
	연령×성별	12.648	2	6.324	1.981	
	오차	344.694	108	3.192		
피 험 자 내	상대유아의 정서조건	0.932	2	0.466	2.204	
	연령×상대유아의 정서조건	1.007	4	0.252	1.191	
	성별×상대유아의 정서조건	0.218	2	0.109	0.516	
	연령×성별 ×상대유아의 정서조건	1.220	4	0.305	1.443	
	오차	45.648	216	0.211		

\* $p < .05$

a=3세, c=5세

먼저, 유아의 연령에 따른 친사회적상황 정서이해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F=3.726, p<.05$ ). 사후검정을 위한 Scheffé 검정 결과 5세는 3세보다 친사회적상황에서 정서이해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5세 유아의 경우, 비록 자신의 욕구를 포기하게 될지라도 친사회적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에서 3세 유아보다 긍정적인 정서이해를 유의미하게 더 많이 보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상황에서 유아는 긍정적인 정서이해를 보인다는 선행연구(Sy et al., 2003)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5세가 3세보다 긍정적인 정서를 유의미하게 많이 지각하는 것은 친사회적상황이 가져오는 긍정적 결과에 대한 이해가 연령이 증가하면서 높아지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다. 정서이해의 이유에 대한 유아의 응답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sup>1)</sup>, 3세의 경우는 주로 ‘그네를 못 탔어요’, ‘정리하는건 힘드니까요’와 같은 부정적 결과지향 응답을 보이거나 ‘친구랑 종이를 주워서요’와 같이 정교한 이유보다는 친사회적 행동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4세와 5세의 경우에는 ‘친구를 도와주면 친구와 사이좋게 놀 수 있잖아요’, ‘친구랑 장난감을 가지고 재미있게 놀 수 있을거예요’ 등 친사회적 행동이 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주는 응답을 많이 보였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친사회적상황 정서이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에 대한 정서이해에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Krettenauer, & Johnston, 2011; Sy et al., 2003). 하지만, 차별적 사회화로 인해 사건에 대한 정서이해와 같은 도덕적 동기가 여아에게서 높게 나타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Nunner-Winkler et al., 2007).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가 되는

---

1) 이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 과정에서 조사대상 유아들에게 정서이해의 이유를 물어보는 추가 질문을 해서 그 응답을 살펴보았다. 친사회적상황의 정서이해에 대한 이유를 범주화하여 모름 응답을 제외하고, 백분율을 분석해본 결과 친사회적 행동을 했을 때 발생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정서이해 이유로 이야기하는 ‘긍정적 결과지향’ 응답이 3세보다 5세에서 2배~3배 정도 많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중립, 화남, 슬픔 정서조건별로 유아가 보인 긍정적 결과지향의 응답을 살펴보았다. 중립조건의 경우 3세는 전체 응답 중 9.4%, 5세는 전체 응답 중 25.5%가 긍정적 결과지향 응답을 보였다. 화남조건에서 3세는 전체 응답 중 9.4%, 5세는 전체 응답 중 23.4%가 긍정적 결과지향 응답을 했으며, 슬픔조건에서 3세는 전체 응답 중 7.1%, 5세는 전체 응답 중 21.4%가 긍정적 결과지향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들 중 공감, 동정심과 같은 정서적 특성을 가진 요인들은 일반적으로 여아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다(Feshbach, 1982; Roberts, & Strayer, 1996). 하지만 상황에 대한 정서이해는 경험의 축적으로 생긴 장기기억의 결과로 정서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이 결합하여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Arsenio, & Lover, 1995), 공감, 동정심보다 인지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친사회적상황 정서이해는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수정된 사회정보처리 모델을 근거로, 상대유아의 정서조건과 같은 상황적 요인이 정서이해와 함께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근거들이 제시된다(송하나, 2012; Arsenio, 2014). 하지만 이는 대부분 유아의 공격성과 관련된 연구들이었다.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는 반사회적 딜레마 상황에 비해 도덕적 책임감과 의무감을 적게 느낀다는 특성을 가지며, 두 상황은 개념적, 행동적으로 구분되는 맥락이다(Krettenauer, & Johnston, 2011; Smentana, Jambon, & Ball, 2014). 유아는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정서이해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 2) 욕구충족상황 정서이해(연구문제 2-2)

연령, 성별 및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에 따른 욕구충족상황 정서이해의 양상을 살펴본 결과는 <표 V-5>과 같다.

먼저 상대유아의 정서조건별로 욕구충족상황 정서이해를 살펴보았다. 슬픔 조건에서 3.13점(SD=1.45)으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중립 조건에서 3.19점(SD=1.43), 화남 조건에서 3.24점(SD=1.44)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1점부터 5점까지의 정서이해 척도 중 슬픔, 중립, 화남 조건에서 모두 3점 ‘그냥 괜찮다’보다 조금 더 높은 점수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유아는 중립, 화남, 슬픔의 상대유아 정서조건



에서 모두 상대유아를 돕거나 나누기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중립적인 정서를 느낄 것이라 이해하는 양상을 보였다.

<표 V-5> 연령, 성별,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에 따른 욕구충족상황 정서이해

상대 유아의 정서 조건	연령	성별		전체 M(SD)
		남아 M(SD)	여아 M(SD)	
중립	3세	3.88(1.28)	3.97(1.04)	3.92(1.16)
	4세	2.89(1.60)	3.00(1.48)	2.95(1.52)
	5세	2.58(1.24)	2.98(1.45)	2.79(1.35)
	전체	3.12(1.47)	3.26(1.41)	3.19(1.43)
화남	3세	4.05(1.12)	4.20(0.84)	4.12(0.99)
	4세	2.65(1.53)	2.94(1.50)	2.81(1.50)
	5세	2.84(1.25)	2.95(1.54)	2.90(1.39)
	전체	3.19(1.43)	3.29(1.46)	3.24(1.44)
슬픔	3세	3.87(1.19)	4.00(0.79)	3.93(1.02)
	4세	2.82(1.62)	2.82(1.47)	2.82(1.52)
	5세	2.55(1.53)	2.90(1.40)	2.74(1.45)
	전체	3.08(1.54)	3.18(1.37)	3.13(1.45)
전체	3세	3.93(1.09)	4.06(0.82)	4.00(0.96)
	4세	2.79(1.52)	2.92(1.43)	2.86(1.46)
	5세	2.66(1.28)	2.94(1.43)	2.81(1.35)
	전체	3.13(1.41)	3.24(1.37)	3.19(1.39)

다음으로 연령에 따른 욕구충족상황 정서이해를 각각의 정서조건별로 살펴보았다. 중립조건에서 3세는 3.92점(SD=1.16), 4세는 2.95점(SD=1.52), 5세는 2.79점(SD=1.35)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서이해의 평균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화남조건에서는 3세는 4.12점(SD=0.99),

4세는 2.81점(SD=1.50), 5세는 2.90점(SD=1.39)로 3세와 비교했을 때 4세와 5세가 낮은 평균점수를 보인다. 슬픔조건에서는 3세는 3.93점(SD=1.02), 4세는 2.82점(SD=1.52), 5세는 2.74점(SD=1.45)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서이해의 평균점수가 낮아진다. 3세의 경우에는 모든 조건에서 4점 ‘조금 좋을 것 같다’의 점수분포를 보이는 반면 4, 5세는 3점 ‘그냥 괜찮다’보다 낮은 정서이해를 보인다. 즉, 3세는 친구를 돕거나 나누기 행동을 하지 않고 자신의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욕구충족상황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느낄 것이라 이해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4, 5세는 욕구충족상황에서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정서이해 양상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상대유아의 모든 정서 조건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별에 따른 욕구충족상황 정서이해를 각각의 정서조건별로 살펴보았다. 중립조건에서 남아는 3.12점(SD=1.47), 여아는 3.26점(SD=1.41), 화남조건에서 남아는 3.19점(SD=1.43), 여아는 3.29점(SD=1.46), 슬픔조건에서 남아는 3.08점(SD=1.54), 여아는 3.18점(SD=1.37)의 점수를 보였다. 모든 조건에서 남아와 여아의 점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남아와 여아 모두 정서조건에 관계없이 욕구충족상황에서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중립적인 정서를 느낄 것이라 이해하는 양상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유아의 연령, 성별 및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에 따른 욕구충족상황 정서이해의 차이를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의 구형성 가정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Mauchly의 단위행렬 검정을 실시한 결과 구형성 가정이 충족되었다( $p>.05$ ). 그 결과는 아래 <표 V-6>와 같다.

먼저, 유아의 욕구충족상황 정서이해는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9.754, p<.001$ ). Scheffé 검정 결과 4, 5세는 3세보다 욕구충족상황에서 정서이해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는 4, 5세 유아의 경우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돕거나 물건을 나누어주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함으로써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경우 3세보다 부정적인 정서이해를 유의미하게 많이 보임을 의미한

다. 이러한 결과는 3세보다 4, 5세가 타인의 신체적, 심리적, 물리적 손실 혹은 이점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정교해지기 때문에(Hoffman, 2000),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 타인의 필요를 외면하는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다. 정서이해의 이유에 대한 유아의 응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sup>2)</sup>, 3세의 경우 주로 ‘그림 그리는건 재밌으니까’, ‘사탕을 맛있게 먹고 집에도 가지고 갈거예요’와 같이 욕구충족상황이 자신에게 가져오는 긍정적 결과를 응답하였다. 반면, 4세와 5세의 경우 ‘친구는 사탕이 하나도 없잖아요’, ‘친구가 힘들어서 계속 우니까요’ 등 타인의 신체적, 심리적, 물리적 손실 혹은 이점에 대해 언급하는 공감지향적인 응답을 하였다.

앞서 친사회적상황 정서이해와 마찬가지로, 유아의 욕구충족상황 정서이해는 성별과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2) 이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 과정에서 조사대상 유아들에게 정서이해의 이유를 물어보는 추가 질문을 해서 그 응답을 살펴보았다. 욕구충족상황의 정서이해에 대한 이유를 범주화하여 백분율을 분석해본 결과(모름 응답 제외한 백분율), 타인의 신체적, 심리적, 물리적 손실 혹은 이점 등 타인의 복지를 고려한 ‘공감지향적 응답’이 3세보다 4세, 5세에서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중립, 화남, 슬픔 조건별로 유아가 보인 공감지향적 응답의 백분율을 살펴보았다. 중립조건에서 3세의 전체 응답 중 17.1%, 4세의 전체 응답 중 34.6%, 5세의 전체 응답 중 34.8%가 공감지향적 응답을 보였다. 화남조건에서 3세의 전체 응답 중 13.5%, 4세의 전체 응답 중 30.9%, 5세의 전체 응답 중 28.7%가 공감지향적 응답을 보였으며, 슬픔조건의 경우 3세의 전체 응답 중 13.9%, 4세의 전체 응답 중 32.3%, 5세의 전체 응답 중 36.6%가 공감지향적 응답을 나타냈다.

<표 V-6> 연령, 성별,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에 따른 욕구충족상황  
정서이해 반복측정변량분석 및 사후검정

	변동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사후검정 (Scheffé)
피 험 자 간	연령	98.902	2	49.451	9.754***	a > b, c
	성별	2.779	1	2.779	0.548	
	연령×성별	0.485	2	0.243	0.048	
	오차	547.551	108	5.070		
피 험 자 내	상대유아의 정서조건	0.719	2	0.360	1.465	
	연령×상대유아의 정서조건	1.307	4	0.327	1.332	
	성별×상대유아의 정서조건	0.019	2	0.010	0.039	
	연령×성별 ×상대유아의 정서조건	0.874	4	0.219	0.891	
	오차	53.007	216	0.245		

\*\*\*  $p < .001$

a=3세, b= 4세, c=5세

이상으로 유아의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정서이해를 알아보기 위해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의 두 가지 상황인 친사회적상황과 욕구충족 상황 정서이해의 양상과 연령, 성별,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에 따른 차이를 확인해보았다. 그 결과 두 상황에서 모두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친사회적상황과 욕구충족상황에의 정서이해를 연령에 따라 비교해보기 위해 상황과 연령에 따른 정서이해를 살펴보았다(<표 V-7> 참조). 그 결과 연령과 상황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서( $F=9.084$ ,  $p<.001$ ), 연령( $F=3.275$ ,  $p<.05$ )과 상황( $F=19.112$ ,  $p<.001$ )의 주효과에 대한 해석은 제외하고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해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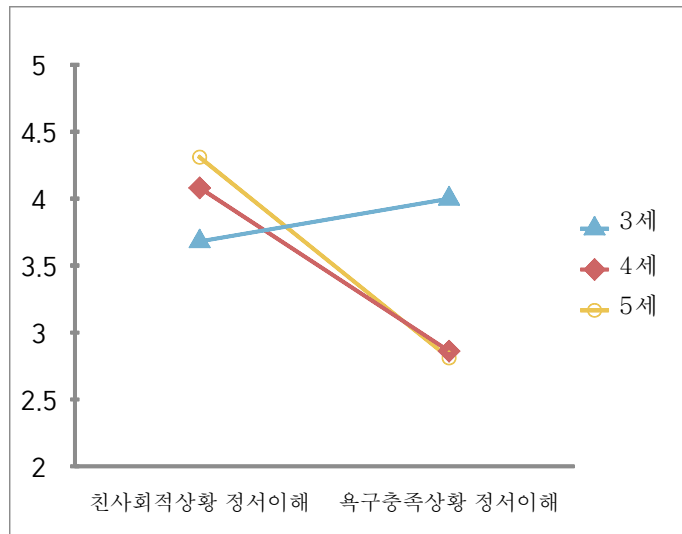
제시한다.

<표 V-7> 상황과 연령에 따른 정서이해 반복측정변량분석

변동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피험자간	연령	5.322	2	2.661	3.275*
	오차	90.192	111	0.813	
피험자내	상황	36.603	1	36.603	19.112***
	연령×상황	34.793	2	17.397	9.084***
	오차	212.583	111	1.915	

\* $p<.05$ , \*\*\* $p<.001$

3세 유아의 경우, 친사회적상황과 욕구충족상황 모두에서 긍정적인 정서이해를 보이기는 했으나, 긍정적인 정서이해의 정도는 친사회적상황(M=3.68, SD=1.20)보다 욕구충족상황(M=4.00, SD=0.96)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3세 유아는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자신의 욕구를 포기하고 돕거나 나누기 행동을 하는 경우보다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경우 긍정적인 정서이해를 더욱 많이 보임을 의미한다. 반면, 4세와 5세 유아의 경우 친사회적상황에서는 긍정적 정서이해(4세: M=4.08점, SD=1.14, 5세: M=4.31점, SD=0.72)를 보이지만, 욕구충족상황에서는 부정적 정서이해를 나타냈다(4세: M=2.86점, SD=1.46, 5세: M=2.81점, SD=1.35). 이는 4세와 5세 유아의 경우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타인의 필요를 외면하는 것 보다, 자신의 욕구를 희생하더라도 친사회적 행동인 돕기, 나누기를 하는 것에 대해 더 큰 정서적 만족감을 느낀다는 의미이다.



<그림 V-1> 상황과 연령에 따른 정서이해 비교

이에 대해 선행연구와 비교해서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다. 첫째, 유아는 반사회적딜레마 상황에서 비도덕적 행위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킨 것에 초점을 맞추어 긍정적 정서이해를 보인다(Krettenauer et al., 2008). 이와 비교했을 때,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는 4세를 기점으로 상대유아를 위해 돕기, 나누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켰을 때 부정적인 정서이해를 보이는 발달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반사회적딜레마 상황과 친사회적딜레마 상황이 반사회적 행동과 친사회적 행동이라는 서로 다른 사회도덕적 행동을 포함하는 구분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Krettenauer, & Johnston, 2011). 반사회적 행동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획득하기 위해 행동을 하는 것으로 유아는 타인의 손실을 고려하기 이전에 자신이 획득한 자원에 더 집중하여 긍정적 정서이해를 보이는 것이다(Arsenio, & Kramer, 1992). 반면 친사회적 딜레마 에서 욕구충족상황은 자신이 갖고 있던 자원에 변함이 없다. 오히려 유아는 친사회적으로 행동했을 때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 발생하는 긍정적 결과와 정서적 만족감에 집중(Akin et al., 2015)하기 때문에 반사회적 딜레마 상황과 다른 발달적 양상을 보이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둘째,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Weller, & Lagattuta, 2013)에서 7세 이후가 되어야 욕구충족상황보다 친사회적상황에서 더 긍정적인 정서이해를 보인다고 밝힌 결과와 이 연구의 결과를 비교해볼 때, 과제의 특성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는 Weller와 Lagattuta(2013)의 연구에서는 상대 아동을 ‘모르는 또래’로 설정하였지만, 이 연구에서는 ‘같은 반 친구’로 상대유아와의 친밀도가 더 높았기 때문에 좀 더 어린 연령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Faver, & Branstetter, 1994; Sierksma et al., 2015; Dunn et al., 2000). 또한 이 연구에서는 유아가 어린이집의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비교적 익숙한 딜레마 상황을 과제로 설정하였다. 유아가 집단보육환경에 일찍부터 노출되면서 또래와 물건을 나누고 양보해야 한다고 학습해왔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제시한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학습의 효과가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 3.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에 따른 유아의 정서이해와 친사회적 의사결정의 관계(연구문제3)

유아의 정서이해(친사회적상황 정서이해, 욕구충족상황 정서이해)와 친사회적 의사결정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상대유아의 정서조건별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대유아의 정서조건별로 정서이해와 친사회적 의사결정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이는 <표 V-8>와 같다. 먼저, 중립 조건에서 친사회적상황 정서이해와 욕구충족상황 정서이해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r=-.439$ ,  $p<.001$ ). 즉 친사회적상황에서 유아가 긍정적인 정서이해를 보일수록 욕구충족상황에서는 긍정적인 정서이해를 적게 보인다는 것이다. 친사회적 의사결정은 친사회적상황 정서이해( $r=.718$ ,  $p<.001$ )와 정적 상관관계를, 욕구충족상황 정서이해( $r=-.579$ ,  $p<.001$ )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유아가 친사회적상황에서 긍정적인 정서이해를 보일수록 돕기, 나누기 행동을 하려는 친사회적 결정을 많이 내린다는 것이다. 또한 유아가 욕구충족상황에서 긍정적인 정서이해를 적게 보일수록 돕기, 나누기 행동을 하려는 친사회적 결정을 많이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화남 조건에서의 정서이해와 친사회적 의사결정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친사회적상황 정서이해와 욕구충족상황 정서이해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r=-.469$ ,  $p<.001$ ). 즉 유아가 친사회적상황에서 긍정적인 정서이해를 보일수록 욕구충족상황에서는 긍정적인 정서이해를 적게 보인다는 것이다. 친사회적 의사결정은 친사회적상황 정서이해( $r=.667$ ,  $p<.001$ )와 정적 상관관계를, 욕구충족상황 정서이해( $r=-.587$ ,  $p<.001$ )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친사회적상황에서 유아가 긍정적인 정서이해를 보일수록 돕기, 나누기 행동을 하려는 친사회적 결정을 많이 내린다는 것이며, 욕구충족상황에서 유아가 긍정적인 정서이해를 적게 보일수록 돕기, 나누기 행동을 하려는 친사회적 결정을 많이 내린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8>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에 따른 정서이해와 친사회적 의사결정의 관계

			정서이해		친사회적 의사결정
			친사회적상황 정서이해	욕구충족상황 정서이해	
중립	정서	친사회적상황	1		
		정서이해			
	이해	욕구충족상황	-.439***	1	
		정서이해			
친사회적 의사결정			.718***	-.579***	1
화남	정서	친사회적상황	1		
		정서이해			
	이해	욕구충족상황	-.469***	1	
		정서이해			
친사회적 의사결정			.667***	-.587***	1
슬픔	정서	친사회적상황	1		
		정서이해			
	이해	욕구충족상황	-.394***	1	
		정서이해			
친사회적 의사결정			.710***	-.611***	1

\*\*\* $p < .001$

마지막으로 슬픔 조건에서의 정서이해와 친사회적 의사결정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친사회적상황 정서이해와 욕구충족상황 정서이해는 부적 상

관관계를 보였다( $r=-.394$ ,  $p<.001$ ). 즉 유아가 친사회적상황에서 긍정적인 정서이해를 보일수록 욕구충족상황에서는 긍정적인 정서이해를 적게 보인다는 것이다. 친사회적 의사결정은 친사회적상황 정서이해( $r=.710$ ,  $p < .001$ )와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욕구충족상황 정서이해( $r=-.611$ ,  $p < .001$ )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친사회적상황에서 유아가 긍정적인 정서이해를 보일수록 돕기, 나누기 행동을 하려는 친사회적 결정을 많이 내린다는 것이며, 욕구충족상황에서 유아가 긍정적인 정서이해를 적게 보일수록 돕기, 나누기 행동을 하려는 친사회적 결정을 많이 내린다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는 유아의 친사회적상황 정서이해와 욕구충족상황 정서이해가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이러한 양상은 상대유아가 보이는 중립, 화남, 슬픔의 모든 정서조건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유아는 친사회적상황에 대해 긍정적 정서를 느낄수록 반대되는 상황인 욕구충족상황에 대해서는 긍정적 정서를 적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아는 친사회적상황에서 긍정적인 정서이해를 많이 할수록, 욕구충족상황에서 긍정적인 정서이해를 적게 할수록 돕기, 나누기 결정을 많이 보이는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상대유아가 보이는 중립, 화남, 슬픔의 모든 정서조건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도덕적 상황에 대한 유아의 정서이해는 중요한 사회인지적 요소로 사회적 행동을 이끌어내는 동기적 요소가 된다는 선행연구들의 주장(Gini et al., 2011; Hoffman, 2000; Tangney et al., 2007)과 맥을 같이 하여 유아의 정서이해와 친사회적 의사결정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인지적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 4.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에 따른 유아의 연령, 성별, 정서이해가 친사회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연구문제 4)

앞서 제시한 상관분석 결과, 유아의 정서이해가 친사회적 의사결정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유아의 연령, 성별, 정서이해(친사회적상황 정서이해, 욕구충족상황 정서이해)가 친사회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회귀분석의 기본가정들이 충족되는지 살펴보았다. 첫째, 각각의 조건에서 오차의 등분산성과 정규성을 산점도와 히스토그램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둘째, 각각의 정서조건에서 오차항의 독립성 확인을 위해 Durbin-Watson 통계량을 확인한 결과 중립조건에서 1.862, 화남조건에서 1.993, 슬픔조건에서 2.153으로 모두 2에 근접한 값을 나타내어 오차항이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하위항목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두 0.8 미만인 것을 확인하였고,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이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연령, 성별, 친사회적상황 정서이해, 욕구충족상황정서이해를 독립변수로, 친사회적 의사결정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각각의 정서조건에 따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V-9>와 같다.

<표 V-9> 유아의 연령, 성별, 정서이해가 친사회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중립	화남	슬픔
	$\beta$	$\beta$	$\beta$
연령	.23***	.21**	.21***
성별	.060	.038	.098
친사회적상황 정서이해	.55***	.47***	.54***
욕구충족상황 정서이해	-.27***	-.30***	-.33***
$R^2(adj. R^2)$	.65(.64)	.60(.58)	.69(.67)
F	51.75***	40.58***	59.48***

\*\*  $p < .01$ , \*\*\*  $p < .001$

중립, 화남, 슬픔의 모든 조건에서 성별을 제외한 연령, 친사회적상황 정서이해, 욕구충족상황 정서이해가 유아의 친사회적 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립조건의 경우, 유아의 연령, 친사회적상황 정서이해, 욕구충족상황 정서이해는 친사회적 의사결정에 64%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F=51.75$ ,  $df=4$ ,  $p < .001$ ). 화남조건의 경우, 유아의 연령, 친사회적상황 정서이해, 욕구충족상황 정서이해는 친사회적 의사결정에 58%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F=40.58$ ,  $df=4$ ,  $p < .001$ ). 슬픔조건의 경우 유아의 연령, 친사회적상황 정서이해, 욕구충족상황 정서이해는 친사회적 의사결정에 67%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F=59.48$ ,  $df=4$ ,  $p < .001$ ).

각각의 조건에서 독립변수들의 표준화계수를 살펴보면, 중립조건에서 친사회적상황 정서이해( $\beta=.55$ ,  $p < .001$ ), 욕구충족상황 정서이해( $\beta=-.27$ ,  $p < .001$ ), 연령( $\beta=.23$ ,  $p < .001$ ) 순서로 친사회적 의사결정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쳤다. 화남조건에서 또한 친사회적상황 정서이해( $\beta=.47$ ,

$p < .001$ ), 욕구충족상황 정서이해( $\beta = -.30, p < .001$ ), 연령( $\beta = .21, p < .01$ ) 순서로 친사회적 의사결정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쳤다. 슬픔 조건에서도 친사회적상황 정서이해( $\beta = .54, p < .001$ ), 욕구충족상황 정서이해( $\beta = -.33, p < .001$ ), 연령( $\beta = .21, p < .001$ ) 순으로 친사회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모든 조건에서 친사회적상황 정서이해, 욕구충족상황 정서이해, 연령의 순서로 친사회적 의사결정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사회적상황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느낄수록, 욕구충족상황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적게 느낄수록 연령이 증가할수록 3, 4, 5세 유아는 친사회적 의사결정을 많이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Gummerum et al., 2010)에 따르면 유아의 욕구충족상황 정서이해는 이들의 친사회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유아가 보이는 욕구충족상황 정서이해 뿐만 아니라 친사회적상황 정서이해 또한 이들의 친사회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친사회적상황 정서이해가 친사회적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다는 결과는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하여서 자부심과 같은 긍정적 도덕정서가 큰 영향력을 갖는다는 주장(Krettenaur, & Johnston, 2011)을 근거로 해석해볼 수 있다. 더불어, 연령보다 정서이해가 유아의 친사회적 의사결정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Asendorpf, & Nunner-Winkler, 1992; Malti et al., 2013)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서이해는 도덕적인 양상을 보이지만 발달의 전 과정에서 지속적인 개인차를 나타낸다는 주장을 근거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연령 또한 친사회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연령보다 유아가 보이는 정서이해의 개인차가 도덕적 행동의 지표가 되어 유아의 친사회적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연구문제 1에서 제시된 결과에 따르면,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에 따라 유아의 친사회적 의사결정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런데 유아의 정서이해가 친사회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은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친사회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은 상황적 자극이다. 반면, 정서이해

는 개인이 오랜 기간 축적해온 지식 체계로 유아가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기대되는 결과를 예상하도록 한다. 선행연구(Eder, & Hommel, 2013)에 따르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결정하고자 할 때, 상황적 자극보다는 미래에 기대되는 결과가 행동을 유발하는 더 큰 동기가 된다. 즉, 정서이해는 유아가 행동을 결정하는 동기가 됨으로써 상대유아의 정서적 자극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상황적 요인인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에 관계없이 정서이해가 친사회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 VI.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유아의 친사회적 의사결정과 정서이해가 어떤 발달적 경향을 보이는지, 그리고 이들 두 변수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에 따라 이러한 발달적 경향과 변수간의 관계에 차이가 있는지에 주목했다. 기존의 연구(김미정, 이순형, 2009; Arsenio, & Kramer, 1992; Malti, & Keller, 2009; Wiersman, & Laupa, 2000)는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보다는 공격성, 규칙위반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과 관련하여 유아의 의사결정과 정서이해만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유아의 의사결정과 정서이해에 대한 논의는 제한적이었다. 또한 수정된 사회정보처리모델에서 강조하는 정서요인인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을 고려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제한점에 주목하여 3, 4, 5세 유아의 친사회적 의사결정 및 정서이해의 양상과 정서이해와 친사회적 의사결정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특히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에 따른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 경기, 충북 소재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4곳의 3, 4, 5세 유아 114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유아에게 일대일 면접방식으로 친사회적 딜레마 과제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상대유아의 정서조건별로 친사회적 의사결정과 정서이해(친사회적상황의 정서이해, 욕구충족상황의 정서이해)에 대한 응답을 얻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상대를 돕거나 상대에게 나누기를 하고자 하는 친사회적 의사결정은 유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많아지며, 구체적으로 4세, 5세 유아가 3세 유아보다 친사회적 의사결정을 많이 보였다. 유아기 동안 사회인지적 능력이 발달하면서 또래관계에서 친사회적 의사결정이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특히, 4세와 5세 유아는 3세 유아보다 친사회적 의사결정을 많이 보이는데, 이는 4세가 또래관계에서 유아

의 친사회적 행동이 급격하게 발달(홍혜란 외, 2008)하는 전환기적 연령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증가하는 유아기에 유아가 또래관계에서 친사회적으로 행동하는 긍정적 상호작용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연령에 따른 발달적 차이를 고려한 관심이 필요하다.

한편, 유아의 친사회적 의사결정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친사회적 행동의 성차를 논의할 때, 친사회적 행동 측정 방법, 친사회적 행동의 하위 유형, 연구대상의 연령 등 다양한 요소들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 연구는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유아가 직접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으로 측정하여, 성인의 평가 방법보다 정형화된 영역활동에 대한 기대가 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성차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Malti, Gummerum et al., 2009). 또한 이 연구에서 측정한 돕기와 나누기는 상대적으로 성차의 영향을 적게 받는 친사회적 행동의 유형이기 때문에 성차가 적게 발현되었을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유아기의 친사회적 행동은 연구방법과 측정되는 과제에 따라 성차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추후 연구에서 다양한 연구방법과 과제를 통해 친사회적 의사결정의 성차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아는 상대유아가 화를 내는 경우 아무런 정서표현이 없거나 슬퍼하는 정서를 보일 때보다 친사회적 결정을 적게 나타내,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이 친사회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이 유아의 친사회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수정된 사회정보처리 모델의 주장(Lemerise, & Arsenio, 2000)과 일치한다. 특히 상대유아가 정서표현이 없을 때와 슬픔 정서표현을 하는 것 사이에는 친사회적 의사결정에 차이가 없었다. 이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상대유아가 화를 내는 경우에는 유아가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친사회적 동기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상대유아의 의도가 왜곡되어 해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유아의 화남 정서표현은 친사회적 행동과 같은 또래 간 긍정적 상호작용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Denham et al., 2002; Hubbard, 2001) 화를 내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



는 유아가 스스로 자신의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사의 관심이 필요하다.

둘째,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에 대한 유아의 정서이해는 상황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또한 유아의 연령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모든 연령의 유아는 친구를 돕거나 물건을 나누어주는 행동을 하는 친사회적상황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정서이해를 보였지만, 5세는 3세보다 긍정적인 정서이해를 더 많이 보였다. 또한 친구를 돕거나 물건을 나누어주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욕구충족상황에서 3세는 긍정적인 정서이해를 보이지만 4세와 5세는 오히려 부정적인 정서이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유아의 연령과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에 따라 유아의 정서이해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3세의 경우에는 친사회적상황보다 욕구충족상황에서 긍정적 정서이해를 더욱 많이 보이지만, 4세와 5세는 친사회적상황에서는 긍정적 정서이해를 보이는 반면에 욕구충족상황에서는 부정적 정서이해를 보였다. 즉, 4세와 5세 유아는 또래와의 관계에서 친사회적인 경험을 축적해 나가고 친사회적 행동이 자신과 타인에게 가져오는 긍정적 결과에 대해 이해하게 된다.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일시적인 만족감을 얻는 것보다 이타적, 친사회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나와 타인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낀다는 정서이해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Corral-Verdugo, Mireles-Acosta, Tapia-Fonllem, & Frajio-Sing, 2011). 이처럼 유아도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타인의 필요를 외면하는 것보다 자신의 욕구를 잠시 참더라도 타인을 도와주고 나누어주는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이 더 큰 정서적 만족감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반면 3세 유아는 친사회적상황보다 욕구충족상황에서 긍정적인 정서이해를 더 많이 보여서, 4세 이상의 유아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반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보이는 유아기 정서이해 특성인 ‘행복한 가해자’ 현상처럼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도 3세 유아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여 얻은 기쁨에 더 집중(Arsenio, & Kramer, 1992)하기 때문에 욕구충족상황에서 긍정적인 정서이해를 더욱 많이 보이는 것이다.

한편,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에 대한 정서이해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여아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다고 알려진 공감, 동정심 등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가 되는 요인들과 비교했을 때 정서이해가 보다 인지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도덕적 동기와 성별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에 대한 유아의 정서이해에 있어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에 따른 차이 또한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상황에 대한 정서이해가 상대유아의 정서조건과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한다는 수정된 사회정보처리 모델의 주장(Lemerise, & Arsenio, 2000)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는 유아의 공격적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수정된 사회정보처리 모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선행연구(송하나, 2012)와 비교했을 때, 친사회적 행동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이라 해석해볼 수 있다. 유아는 친사회적 행동에 대해서 반사회적 행동을 하지 않는 것보다 도덕적 의무감을 적게 느낀다(Krettenauer, & Johnston, 2011). 이러한 친사회적 행동의 특성은 유아의 정서이해가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수정된 사회정보처리 모델과 관련하여 여러 맥락의 사회도덕적 행동을 추후 연구에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에 대한 유아의 정서이해는 이들이 친사회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에 대한 유아의 정서이해가 친사회적인 도덕규범과 기준을 내재화하여 친사회적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동기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친사회적상황의 정서이해가 욕구충족상황의 정서이해보다 친사회적 의사결정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는다는 점에 미루어 보았을 때, 친사회적상황에서 유아가 긍정적 정서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유아의 긍정적 정서이해는 또래와의 관계에서 친사회적 행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즐거운 경험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하여 칭찬과 같은 부모의 긍정적인 반응이 가정 내에서

혹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Hastings, McShane, Parker, & Ladha, 2007; Waugh, Brownell, & Pollock, 2015)들은 친사회적 행동을 통해 발생하는 긍정적 결과에 대한 경험이 중요한 사회화 역할을 함을 알려준다. 따라서 유아가 또래와의 관계에서 친사회적 행동을 통해 기쁨, 만족감, 뿌듯함 등 긍정적 정서적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발달에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친사회적 의사결정을 하는 정도가 증가하지만, 정서이해의 개인차가 유아의 친사회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인지발달과 함께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한다는 인지적 관점과 더불어 연령이 증가하더라도 정서이해의 개인차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해석을 통합하는 사회인지적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Carlo, 2014; Eisenberg et al., 2006). 따라서 유아기 동안 정서이해는 계속 발달하기 때문에 연령 또한 친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며, 이 시기에 유아가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친사회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한다는 정서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유아의 연령과 정서이해가 친사회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 유아의 중립, 화남, 슬픔 정서조건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에 따른 친사회적 의사결정의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상대유아가 화남 정서표현을 보일 때 중립, 슬픔 정서표현을 보일 때보다 친사회적 의사결정을 적게 보였다. 이는 상대유아의 정서조건이 친사회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는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서이해가 친사회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모든 정서 조건에서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난 것은 개인의 경험을 통해 오랜 기간 축적해온 지식체계인 정서이해가 내재적 동기로 작용하여 상황적 자극인 상대유아의 정서보다 친사회적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아기에 타인의 정서를 적절하게 고려하고 반응하는 것 또한 중요한 발달적 과제이지만, 유아가 친사회적

상황에 대한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것이 친사회적 행동 발달에 더욱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그동안은 주로 교사와 부모 등 성인이 평가하는 체크리스트 방법이 사용된 것과 달리 이 연구에서는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을 통해 유아가 직접적으로 선택하고 응답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다. 성인이 평정하는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은 유아의 직접적인 응답을 얻을 수 없고 친사회적 행동이 발생하는 상황 요인들과 유아의 동기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을 고려하여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을 유아의 실생활에 적합하게 구성하여 사용하였다는 방법론적 의의가 있다.

둘째, 공격성, 규칙위반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을 포함하는 반사회적 딜레마에 비하여 연구가 상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유아의 정서이해를 살펴보고 발달적 특성에 대해 밝혔다. 그동안은 반사회적 딜레마 상황과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이 서로 다른 사회도덕적 행동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도덕적 맥락으로 간주하고 정서이해 발달을 살펴보았다. 이로 인해 유아의 공격행동과 관련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행복한 가해자’ 현상을 토대로 친사회적 행동에 실패 한 상황에서의 정서이해를 해석했다. 이 연구에서는 반사회적 딜레마와 구분되는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유아의 정서이해를 독립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친사회적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정서이해가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여 유아의 친사회성 발달에 필요한 사회인지적 요소에 대해 밝혔다. 기존의 연구결과들은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 중 타인을 위해 돕기, 나누기 행동을 하지 않는 욕구충족상황에서의 정서이해와 친사회적 의사결정의 관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밝혀왔다. 이 연구는 욕구충족 상황 뿐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욕구를 잠시 포기하더라도 타인을 위해 돕기, 나누기 행동을 하는 친사회적상황에서 발생하는 긍정적 정서이해

또한 친사회적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밝혀 정서이해의 중요성을 확장시켜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이후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해 친사회적행동이 가져오는 긍정적 정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화 방법임을 시사하며 유아교육 현장에서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적 접근 방법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끝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후속 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에서 사용된 친사회적 의사결정은 ‘친사회적 결정’과 ‘친사회적이지 않은 결정’ 두 가지로 유아가 의사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는 유아의 행동을 제한적으로 살펴보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유아의 의사결정을 다양한 범주로 구분해 측정하거나 관찰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의 정서이해를 선행연구에서 밝힌 반사회적 딜레마 상황의 정서이해에 근거하여 두 상황이 서로 다른 맥락이며 교환적으로 해석할 수 없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해석한 것으로, 친사회적 딜레마 상황과 반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유아의 정서이해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친사회적 딜레마와 반사회적 딜레마의 정서이해를 각각 살펴보고 직접적인 비교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친사회적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져 있는 공감, 동정심 등의 여러 가지 정서적 요소를 함께 살펴보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정서이해를 공감, 동정심 등 사회도덕적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서요인들과 함께 살펴봄으로써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가 되는 여러 요소들의 영향과 관계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김미정, 이순형(2009). 5세아와 7세아의 도덕적, 사회인습적, 개인적 규칙 위반에 대한 정서예측 및 정서설명.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0(2), 169-180.
- 김세리, 이강이(2013). 유아의 사건표상이 또래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20(4), 1-22.
- 김은설, 최은영, 조아라(201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영유아기 인성교육 강화 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송승희, 장정은(2015). 유아의 정서적 공감능력, 어머니의 공감능력 및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6(3), 59-75.
- 송하나 (2012). 아동학회지: 유아의 도덕적 정서 이해의 발달: 가해자 의도와 피해자 반응의 영향. *아동학회지*, 33(2), 1-12.
- 원정애, 송현주(2009). 타인의 감정, 바람,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한국 아동의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4), 57-71.
- 이옥경(2002). 과제의 특성에 따른 유아와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추론과 친사회적 의사결정 및 어머니의 친사회적 도덕추론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지영, 이경옥(2013). 또래관계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정서표현과 또래의 정서표현에 대한 유아의 반응.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7(1), 49-73.
- 정윤희, 김희진(2002). 유아가 인식하는 부정적 정서와 반응. *아동학회지*, 23(2), 31-47.
- 정현심(2014). 유아의 의도귀인과 정서귀인이 반응적 공격성과 주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상대유아의 정서 조건에 따른 차이-.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인숙, 이강이(2010). 사회정보처리 구성요소와 정서요인이 유아의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1(6), 15-34.

- 홍혜란, 하지영, 서소정(2008).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발달에 관한 연구 - 유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기질, 정서지능과 어머니의 양육신념 및 사회화 전략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9(6), 1-19.
- Aknin, L. B., Broesch, T., Hamlin, J. K., & Van de Vondervoort, J. W. (2015). Prosocial behavior leads to happiness in a small-scale rural societ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44(4), 788-795.
- Arsenio, W. F. (2014). Moral emotion attributions and aggression. In M. Killen & J. G. Smetana (Eds.), *Handbook of moral development* (2nd ed, pp. 235-255). New York, NY: Psychology Press.
- \_\_\_\_\_, & Kramer, R. (1992). Victimizers and their victims: Children's conceptions of the mixed emotional consequences of moral transgressions. *Child development*, 63(4), 915-927.
- \_\_\_\_\_, & Lover, A. (1999). Children's conceptions of sociomoral affect: Happy victimizers, mixed emotions, and other expectancies. In M. Killen & D. Hart (Eds.), *Morality in everyday life: Developmental perspectives* (pp. 87 - 128).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sendorpf, J. B., & Nunner Winkler, G. (1992). Children's moral motive strength and temperamental inhibition reduce their immoral behavior in real moral conflicts. *Child Development*, 63(5), 1223-1235.
- Bar-Tal, D., Raviv, A., & Goldberg, M. (1982). Helping behavior among preschool children: An observational study. *Child development*, 53(2) 396-402.
- Berthoz, S., Grezes, J., Armony, J. L., Passingham, R. E., & Dolan, R. J. (2006). Affective response to one's own moral violations. *Neuroimage*, 31(2), 945-950.

- Capage, L., & Watson, A. C. (2001).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ory of mind, aggressive behavior, and social skills in young children.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2*(4), 613-628.
- Carlo, G. (2014). The development and correlates of prosocial moral development. In M. Killen & J. G. Smetana (Eds.), *Handbook of moral development* (2nd ed, pp. 208-234). New York, NY: Psychology Press.
- Carlson, C. R., Felleman, E. S., & Masters, J. C. (1983). Influence of children's emotional states on the recognition of emotion in peers and social motives to change another's emotional state. *Motivation and Emotion, 7*(1), 61-79.
- Corral-Verdugo, V., Mireles-Acosta, J., Tapia-Fonllem, C., & Fraijo-Sing, B. (2011). Happiness as correlate of sustainable behavior: A study of pro-ecological, frugal, equitable and altruistic actions that promote subjective wellbeing. *Human Ecology Review, 18*(2), 95-104.
- Crick, N. R., & Dodge, K. A. (1994). A review and reformulation of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mechanisms in children's social adju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115*(1), 74.
- Denham, S. A. (1986). Social cognition, prosocial behavior, and emotion in preschoolers: Contextual validation. *Child development, 57*(1), 194-201.
- \_\_\_\_\_, Caverly, S., Schmidt, M., Blair, K., DeMulder, E., Caal, S., Hamada, H., & Mason, T. (2002). Preschool understanding of emotions: Contributions to classroom anger and aggressio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3*(7), 901-916.
- \_\_\_\_\_, Way, E., Kalb, S. C., Warren Khot, H. K., & Bassett, H. H. (2013). Preschoolers'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and



- early school success: The challenging situations task.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31(2), 180–197.
- Dunfield, K. A., & Kuhlmeier, V. A. (2013). Classifying prosocial behavior: Children's responses to instrumental need, emotional distress, and material desire. *Child Development*, 84(5), 1766–1776.
- Dunn, J., Cutting, A. L., & Demetriou, H. (2000). Moral sensibility, understanding others, and children's friendship interactions in the preschool period.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8(2), 159–177.
- Eder, A. B., & Hommel, B. (2013). Anticipatory control of approach and avoidance: an ideomotor approach. *Emotion Review*, 5(3), 275–279.
- Eisenberg, N., Fabes, R. A., & Spinrad, T. L. (2006). Prosocial behaviour. In W. Damon, R. M., Lerner (Series Eds.) & N. Eisenberg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 and personality development* (6th ed., pp. 646–718). New York, NY: Wiley.
- \_\_\_\_\_, & Hand, M. (1979). The relationship of preschoolers' reasoning about prosocial moral conflicts to prosoci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50(2), 356–363.
- \_\_\_\_\_, & Mussen, P. H. (1989). *The roots of prosocial behavior in childre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Spinrad, T. L., & Morris, A. (2014). Empathy-related responding in children. In M. Killen & J. G. Smetana (Eds.), *Handbook of moral development* (2nd ed, pp. 184–207). New York, NY: Psychology Press
- Ellis, W. E., & Zarbatany, L. (2007). Peer group status as a moderator of group influence on children's deviant,

- aggressive, and prosoci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78(4), 1240-1254.
- Farver, J. A. M., & Branstetter, W. H. (1994). Preschoolers' prosocial responses to their peers' distress. *Developmental Psychology*, 30(3), 334.
- Feshbach, N. D. (1982). Sex differences in empathy and social behavior in children. In N. Eisenberg (Ed.),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pp. 315-338). New York: Academic Press.
- Gasser, L., Gutzwiller-Helfenfinger, E., Latzko, B., & Malti, T. (2013). Moral emotion attributions and moral motivation. In T. Lovert, F. Oser, & K. Heinrichs (Eds.), *Handbook of Moral Motivation: Theories, Models, Applications* (pp. 307-322). Rotterdam: Sense Publishers.
- Gini, G., Pozzoli, T., & Hauser, M. (2011). Bullies have enhanced moral competence to judge relative to victims, but lack moral compa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0(5), 603-608.
- Gummerum, M., Hanoch, Y., Keller, M., Parsons, K., & Hummel, A. (2010). Preschoolers' allocations in the dictator game: The role of moral emotions.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31(1), 25-34.
- Harris, P. (1985). What children know about the situations that provoke emotions. In M. Lewis & C. Saarni (Eds.), *The socialization of emotion* (pp.161-186). New York: Plenum.
- Hastings, P. D., McShane, K. E., Parker, R., & Ladha, F. (2007). Ready to make nice: Parental socialization of young sons' and daughters' prosocial behaviors with peer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8(2), 177-200.

- Hepach, R., Vaish, A., & Tomasello, M. (2013). Young children sympathize less in response to unjustified emotional distress. *Developmental psychology*, 49(6), 1132.
- Hoffman, M. L. (2000). *Empathy and Moral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Caring and Jus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K.
- Howes, C., Rubin, K. H., Ross, H. S., & French, D. C. (1988). Peer interaction of young childre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i-92.
- Hubbard, J. A. (2001). Emotion expression processes in children's peer interaction: The role of peer rejection, aggression, and gender. *Child development*, 72(5), 1426-1438.
- \_\_\_\_\_, Dodge, K. A., Cillessen, A. H., Coie, J. D., & Schwartz, D. (2001). The dyadic nature of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in boys'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2), 268.
- Iannotti, R. J. (1985). Naturalistic and structured assessments of prosocial behavior in preschool children: The influence of empathy and perspective tak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1(1), 46.
- Jackson, M., & Tisak, M. S. (2001). Is prosocial behaviour a good thing? Developmental changes in children's evaluations of helping, sharing, cooperating, and comforting.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9(3), 349-367.
- Keller, M., Lourenço, O., Malti, T., & Saalbach, H. (2003). The multifaceted phenomenon of 'happy victimizers': a cross cultural comparison of moral emotion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1(1), 1-18.
- Krettenauer, T., & Johnston, M. (2011). Positively versus negatively

- charged moral emotion expectancies in adolescence: The role of situational context and the developing moral self.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9(3), 475-488.
- \_\_\_\_\_, Malti, T., & Sokol, B. (2008). The development of moral emotion expectancies and the happy victimizer phenomenon: A critical review of theory and application.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al Science*, 2(3), 221-235.
- Lagattuta, K. H. (2005). When you shouldn't do what you want to do: Young children's understanding of desires, rules, and emotions. *Child Development*, 76(3), 713-733.
- Lemerise, E. A., & Arsenio, W. F. (2000). An integrated model of emotion processes and cognition in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Child development*, 71(1), 107-118.
- \_\_\_\_\_, Gregory, D. S., & Fredstrom, B. K. (2005). The influence of provocateurs' emotion displays on the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of children varying in social adjustment and age.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90(4), 344-366.
- Malti, T., Gasser, L., & Buchmann, M. (2009). Aggressive and prosocial children's emotion attributions and moral reasoning. *Aggressive Behavior*, 35(1), 90-102.
- \_\_\_\_\_, Gummerum, M., & Buchmann, M. (2007). Contemporaneous and 1-year longitudinal prediction of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from sympathy and moral motivation.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8(3), 277-299.
- \_\_\_\_\_, Keller, M., & Buchmann, M. (2009). Children's moral motivation, sy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80(2), 442-460.
- \_\_\_\_\_, & Keller, M. (2009). The relation of elementary-school

- children's externalizing behaviour to emotion attributions, evaluation of consequences, and moral reasoning.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6(5), 592-614.
- \_\_\_\_\_, & Buchmann, M. (2013). Do moral choices make us feel good? The development of adolescents' emotions following moral decision making.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3(2), 389-397.
- \_\_\_\_\_, & Krettenauer, T. (2013). The relation of moral emotion attributions to prosocial and antisocial behavior: A meta-analysis. *Child development*, 84(2), 397-412.
- Martin, A., & Olson, K. R. (2015). Beyond Good and Evil What Motivations Underlie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0(2), 159-175.
- Murphy, B. C., & Eisenberg, N. (1997). Young children's emotionality, regulation and social functioning and their responses when they are targets of a peer's anger. *Social Development*, 6(1), 18-36.
- Nelson, D. A., & Crick, N. R. (1999). Rose-colored glasses: Examining the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of prosocial young adolescents.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9(1), 17-38.
- Nunner-Winkler, G, Meyer-Nikele, M., & Wohlrab, D. (2007). Gender differences in moral motivation. *Merrill-Palmer Quarterly*, 53(1), 26-52.
- Paciello, M., Fida, R., Cerniglia, L., Tramontano, C., & Cole, E. (2013). High cost helping scenario: The role of empathy, prosocial reasoning and moral disengagement on helping behavio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5(1), 3-7.
- Paulus, M., & Moore, C. (2014). The development of

- recipient-dependent sharing behavior and sharing expectations in preschool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50(3), 914.
- Pons, F., Harris, P. L., & de Rosnay, M. (2004). Emotion comprehension between 3 and 11 years: Developmental periods and hierarchical organization.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2), 127-152.
- Roberts, W., & Strayer, J. (1996). Empathy,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prosoci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2), 449-470.
- Saarni, C. (1992). Children's emotional expressive behaviors as regulators of others' happy and sad emotional states.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1992(55), 91-106.
- Smetana, J. G., & Jambon, M., Ball, C.(2014). The social domain approach to children's moral and social judgments. In M. Killen & J. G. Smetana (Eds.), *Handbook of moral development* (2nd ed, pp. 23-45). New York, NY: Psychology Press.
- Smetana, J. G., & Killen, M. (2008). Moral cognition, emotions, and neuroscience: An integrative developmental 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Developmental Science*, 2(3), 324-339.
- Sierksma, J., Thijs, J., Verkuyten, M., & Komter, A. (2014). Children's reasoning about the refusal to help: The role of need, costs, and social perspective taking. *Child development*, 85(3), 1134-1149.
- 
- (2015). In group bias in children's intention to help can be overpowered by inducing empathy.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33(1), 45-56.

- Svetlova, M., Nichols, S. R., & Brownell, C. A. (2010). Toddlers' prosocial behavior: From instrumental to empathic to altruistic helping. *Child development, 81*(6), 1814–1827.
- Sy, S. R., DeMeis, D. K., & Scheinfeld, R. E. (2003). Pre school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emotional consequences for failures to act prosocially.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1*(2), 259–272.
- Tangney, J. P., Stuewig, J., & Mashek, D. J. (2007). Moral emotions and moral behavior.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8*, 345.
- Taylor, Z. E., Eisenberg, N., Spinrad, T. L., Eggum, N. D., & Sulik, M. J. (2013). The relations of ego-resiliency and emotion socialization to the development of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across early childhood. *Emotion, 13*(5), 822.
- Terwogt, M. M. (2002). Emotional states in self and others as motives for helping in 10 year old children.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1), 131–147.
- Turiel, E. (1983). *The development of social knowledge: Morality and conven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aish, A., Carpenter, M., & Tomasello, M. (2009). Sympathy through affective perspective taking and its relation to prosocial behavior in toddlers. *Developmental psychology, 45*(2), 534.
- 
- \_\_\_\_\_ (2010). Young children selectively avoid helping people with harmful intentions. *Child development, 81*(6), 1661–1669.
- Von Salisch, M. (2001). Children's emotional development: Challenges in their relationships to parents, peers, and friend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5*(4), 310–319.
- Waugh, W., Brownell, C., & Pollock, B. (2015). Early socialization of

- prosocial behavior: Patterns in parents' encouragement of toddlers' helping in an everyday household task.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39, 1-10.
- Weisberg, D. S., & Leslie, A. M. (2012). The role of victims' emotions in preschoolers' moral judgments. *Review of Philosophy and Psychology*, 3(3), 439-455.
- Weller, D., & Lagattuta, K. H. (2013). Helping the In Group Feels Better: Children's Judgments and Emotion Attributions in Response to Prosocial Dilemmas. *Child development*, 84(1), 253-268.
- 
- \_\_\_\_\_ (2014). Children's judgments about prosocial decisions and emotions: Gender of the helper and recipient matters. *Child development*, 85(5), 2011-2028.
- Wiersma, N., & Laupa, M. (2000). Young children's conceptions of the emotional consequences of varied social events. *Merrill-Palmer Quarterly (1982-)*, 46(2), 325-341.
- Zahn-Waxler, C., Radke-Yarrow, M., Wagner, E., & Chapman, M. (1992). Development of concern for oth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8(1), 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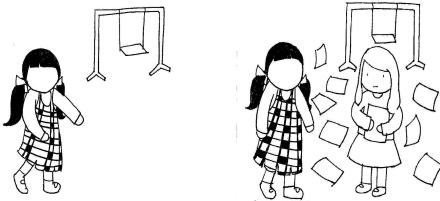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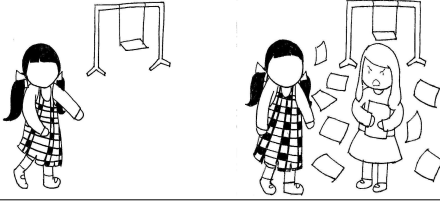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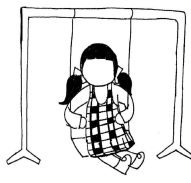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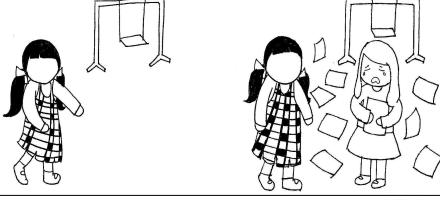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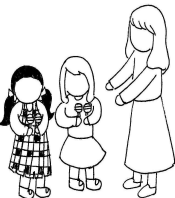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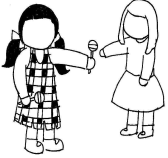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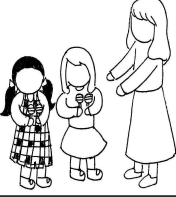


<부록 1> 친사회적 딜레마 이야기 과제

과제번호	에피소드
1-1(중립)	00는 놀이터에서 그네가 너무 타고 싶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반 친구가 그림을 그린 종이들을 들고 가다가 종이가 바람에 멀리 날아가는 것을 보았어요. 친구가 종이들을 혼자 줍기 힘들어 하고 있어요.
1-2(화남)	00는 놀이터에서 그네가 너무 타고 싶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반 친구가 그림을 그린 종이들을 들고 가다가 종이가 바람에 멀리 날아가는 것을 보았어요. 친구가 종이들을 혼자 줍기 힘들어 하며 <b>얼굴을 찡그리며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b>
1-3(슬픔)	00는 놀이터에서 그네가 너무 타고 싶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반 친구가 그림을 그린 종이들을 들고 가다가 종이가 바람에 멀리 날아가는 것을 보았어요. 친구가 종이들을 혼자 줍기 힘들어 하며 <b>울면서 슬퍼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b>
2-1(중립)	00는 정말 갖고 싶던 예쁜 색칠 책이 생겨서 색칠을 하러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반 친구가 장난감 박스를 옮기다가 박스에 있는 장난감들을 다 떨어뜨렸어요. 친구가 혼자 장난감을 정리하기 힘들어 하고 있어요.
2-2(화남)	00는 정말 갖고 싶던 예쁜 색칠 책이 생겨서 색칠을 하러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반 친구가 장난감 박스를 옮기다가 박스에 있는 장난감들을 다 떨어뜨렸어요. 친구가 혼자 장난감을 정리하기 힘들어 하며 <b>얼굴을 찡그리며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b>
2-3(슬픔)	00는 정말 갖고 싶던 예쁜 색칠 책이 생겨서 색칠을 하러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반 친구가 장난감 박스를 옮기다가 박스에 있는 장난감들을 다 떨어뜨렸어요. 친구가 혼자 장난감을 정리하기 힘들어 하며 <b>울면서 슬퍼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b>

과제번호	에피소드
3-1(중립)	00는 놀이 시간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두 개의 자동차 (인형)를 가지고 자동차 경주 놀이(인형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반 친구가 자신은 가지고 놀 자동차가 없다고 말 하는 것을 보았어요.
3-2(화남)	나는 놀이 시간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두 개의 자동차 (인형)를 가지고 자동차 경주 놀이(인형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반 친구가 자신은 가지고 놀 자동차가 없다고 말 하며 <b>얼굴을 찡그리며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b>
3-3(슬픔)	나는 놀이 시간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두 개의 자동차 (인형)를 가지고 자동차 경주 놀이(인형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반 친구가 자신은 가지고 놀 자동차가 없다고 말 하며 <b>울면서 슬퍼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b>
4-1(중립)	우리 반 친구들은 맛있는 사탕 두 개를 선물로 받았어요. 이 사탕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탕이에요. 그런데 같은 반 친구가 사탕을 먹으려다 땅에 떨어뜨려 더 이상 사탕을 먹을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어요.
4-2(화남)	우리 반 친구들은 맛있는 사탕 두 개를 선물로 받았어요. 이 사탕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탕이에요. 그런데 같은 반 친구가 사탕을 먹으려다 땅에 떨어뜨려 더 이상 사탕을 먹을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며 <b>얼굴을 찡그리며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b>
4-3(슬픔)	우리 반 친구들은 맛있는 사탕 두 개를 선물로 받았어요. 이 사탕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탕이에요. 그런데 같은 반 친구가 사탕을 먹으려다 땅에 떨어뜨려 더 이상 사탕을 먹을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며 <b>울면서 슬퍼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b>

<부록 2> 친사회적 딜레마 이야기 과제 그림 (여아용)

과제 번호	상대유아 정서조건	이야기	선택지
1	중립		친사회적 결정 
	화남		친사회적이지 않은 결정 
	슬픔		
2	중립		친사회적 결정 
	화남		친사회적이지 않은 결정 
	슬픔		

과제 번호	상대유아 정서조건	이야기	선택지
3	중립	  	친사회적 결정  
	화남	  	친사회적이지 않은 결정
	슬픔	  	
4	중립	 	친사회적 결정  
	화남	 	친사회적이지 않은 결정
	슬픔	 	

<부록 3> 정서이해 응답 이유의 사례

상황	연령	정서 조건	유아 응답 예시
친사회적 상황 정서 이해	3세	중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에 가져가고 싶은데 친구 줘서 기분이 안 좋아요</li> <li>• 그네를 늦게 타야 해서 기분이 안 좋아요</li> </ul>
		화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 하나밖에 없어서 속상할 것 같아요</li> <li>• 친구가 화내서 나빠요</li> <li>• 자동차 가지고 같이 놀 수 있으면 좋아요</li> </ul>
		슬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구랑 정리하는건 힘들어요</li> <li>• 친구랑 사이좋게 놀 수 있으니까 좋아요</li> </ul>
	4세	중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구를 도와주면 좀 더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요</li> <li>• 친구가 못 먹던 것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li> </ul>
		화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나게 하면 기분이 더 나빠요</li> <li>• 친구가 화 안내서 좋아요</li> </ul>
		슬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구가 안 울 수 있어요</li> <li>• 친구 종이 가 계속 바람에 날아가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li> </ul>
	5세	중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구하고 한 개씩 나누어 쓰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li> <li>• 친구 혼자서 정리하면 힘들니까 도와줘서 좋아요</li> </ul>
		화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낸 친구에게는 주기 싫어요</li> <li>• 친구가 기분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요</li> </ul>
		슬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구에게 양보하는건 언제나 좋아요.</li> <li>• 친구가 다시 웃을 수 있어서 좋아요</li> </ul>

상황	연령	정서 조건	유아 응답 예시
욕구 충족 상황 정서 이해	3세	중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네 타는거 시원해서 좋아요</li> <li>• 두 개 다 먹어서 좋아요</li> </ul>
		화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 시끄럽고 편해요</li> <li>• 친구는 화났는데 내 기분은 안줘서 좋아졌어요</li> </ul>
		슬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구가 계속 슬퍼하니깐요 안좋아요</li> <li>• 친구들이랑 놀리 가는게 더 좋아서요</li> </ul>
		중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구가 불쌍해서 기분이 안 좋아요</li> <li>• 그러면 친구가 이제 나랑 안 놀 수도 있어요.</li> </ul>
		화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구가 말을 심하게 하니깐요</li> <li>• 친구가 예쁘게 말하면 줄텐데, 화내면 나도 내 것 주기 싫어요</li> </ul>
		슬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구가 고마워 안 하니깐요</li> <li>• 친구 안주면 친구가 계속 우니깐요</li> </ul>
	4세	중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구가 혼자하면 힘드니깐요</li> <li>• 친구 종이 줍는 것을 도와 주는게 더 마음이 좋을 것 같아요</li> </ul>
		화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구는 인형이 없으니까 좀 안 좋을 것 같아요</li> <li>• 친구 안도와주면 계속 친구가 화내고 시끄러울 수 있어요.</li> </ul>
		슬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구랑 같이 안 있고 친구가 혼자 정리해야 하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li> <li>• 친구를 안주면 내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요</li> </ul>
		중립	
		화남	
		슬픔	

Abstract

# The Effects of Emotion Understanding on Preschoolers' Prosocial Decision-making

Kim, Min Jeong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1) to investigate children's prosocial decision-making according to age, gender and emotional conditions of counterpart child, (2) to investigate children's emotion understanding(in prosocial and desire-fulfilled situations) according to age, gender, and emotional condition of counterpart child, (3) to examine the correlation between children's emotion understanding(in prosocial and desire-fulfilled situations) and prosocial decision-making according to emotional conditions of counterpart child, and (4) to investigate whether children's age, gender and emotion understanding(in prosocial and desire-fulfilled situations) have effects on their prosocial decision-making with respect to emotional conditions of counterpart child.

A total of 114 preschool children (35 of 3-year-olds, 40 of 4-year-olds and 39 of 5-year olds) from four child-care centers in Seoul, Gyeonggi and Chungbuk Province were the subject of this study. Each child was interviewed individually with prosocial dilemma tasks and was asked to make decisions and understand emotions(in prosocial and desire-fulfilled situations) according to emotional conditions of the counterpart child. Statistical methods adopted for the data analysis were mean, standard deviations, repeated measure ANOVA, Pearson's correlations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using SPSS 22.0 program.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ildren's prosocial decision-making according to age. The 4 and 5-year-old children showed more prosocial decision-making in prosocial dilemmas than 3-year-old children. The prosocial decision-making was significantly lower when counterpart child was in an anger condition than in neutral and sad conditions.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shown in children's prosocial decision-making depending on gender.

Second, children's emotion understanding showed significant age differences in both prosocial and desire-fulfilled situations. In prosocial situation, 5-year-old children displayed higher positive emotion understanding scores than 3-year-old children even though both of them showed positive emotions. And in desire-fulfilled situatio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3-year-olds and 4, 5-year olds. The 3-year-olds showed positive emotion understanding. whereas 4 and 5-year olds showed negative emotion understanding.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depending on gender and emotional conditions of counterpart child.

Third, children's prosocial decision-making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emotion understandings in both prosocial and desire-fulfilled situations. Moreover,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emotion understandings of prosocial and desire-fulfilled situations. These were equal to all emotional conditions of counterpart child.

Lastly, the emotion understanding in prosocial and desire-fulfilled situations, as well as the child age had significant effects on children's prosocial decision-making. Children were more inclined to make prosocial decisions when they showed higher emotion understanding in prosocial situation and lower emotion understanding in desire-fulfilled situation. Children's prosocial decision-making also increased with higher age. These were equal to all emotional conditions of the counterpart.

The results revealed that children developed prosocial decision-making and emotion understanding in prosocial dilemmas. From the age 4, prosocial decision-making increased in peer relationships and emotion understanding grew in a moral perspective. Also, the results showed the impact of the counterparts' emotional conditions on children's prosocial decision-making.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a sense that it demonstrates the meaning of emotional factors which had an effect on prosocial decision-making by focusing on the role of emotion understanding as an important social cognitive factor in children's prosocial decision-making.

**keywords : prosocial decision-making, prosocial dilemmas,  
emotion understanding, emotional condition of counterpart child**  
*Student Number : 2014-20349*